



[금융] 부·울·경 혁신금융 메카로 BNK금융 5000억 지원 05



Economy

| | | | |
|------------|--------------------|-----------|-------------------------|
| 코스피 | ↑ 2067.40 (+22.79) | 코스닥 | ↑ 641.46 (+8.51) |
| 금리 (미국 3년) | → 1.28 (0.00) | 환율 (원/달러) | ↓ 1184.90 (-3.90) (14일) |

돈 빌리기 어렵고 R&D 걸들고 수도권 쓸림 여전

“中企 위한 나라는 없다”

정부 혁신성장정책 유명무실 자금·경영애로 갈수록 심화

RG 발급, 대기업 보다 늦고 지방中企 ‘제2금융권’ 의존 청년 38%, 1년채 안돼 퇴사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자금·경영 애로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은 여전했다. 해외진출 기업은 높은 법인세를 지적하며 국내 복귀를 꺼려했고, 국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38%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나갔다.

14일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연구·개발(R&D)에 106조1509억원을 투자했다. 국가 전체 R&D 투자

(2016~2019년 산업은행 선수금 환급보증 현황)

| | 발급건수 | 보증금액 | 당일처리 |
|------|------------|------------------|-------------|
| 대기업 | 127건(78%) | 5조8,834억원(90.3%) | 124건(97.6%) |
| 중견기업 | 25건(15.4%) | 6,010억원(9.2%) | 25건(100%) |
| 중소기업 | 10건(6.1%) | 254억원(0.3%) | 3건(30%) |
| 합계 | 162건 | 6조 5,098억원 | 152건(93.8%) |

(국가·중소기업 R&D 현황)

| 구분 (억원,%)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가 R&D | 498,904 | 554,501 | 593,009 | 637,341 | 659,594 | 694,005 | 787,892 |
| 중소기업 R&D | 98,371 | 111,520 | 637,341 | 112,367 | 122,061 | 131,738 | 136,909 |
| 비중 | 19.7 | 20.1 | 659,594 | 17.6 | 18.5 | 19.0 | 21.9 |

금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곳은 2004년 2만714개에서 2017년 4만5320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R&D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른바 ‘사업화 성공률’은 50.1%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매출액)도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

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14년 2.39%로 감소했고, 2012년의 경우 -0.94%까지 떨어졌다.

기술 개발은 물론 은행권 차별에 따른 경영 애로까지 겪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

까지 대기업 127개 사업 중 97.6%에 해당하는 124개의 RG를 신청 당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모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했고, 길게는 108일까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차별도 심각하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밝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은 ‘해외온렌딩’ 지원은 2016년 1조원에서 2017년 1조9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늘리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조원을 초과했다. 해외온렌딩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4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19 제약&바이오 포럼’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

메트로경제가 오는 10월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9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세번째 열리는 이번 제약바이오 포럼의 주제는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종 제약·바이오 벤처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정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정책과장, 장은현 쉐링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강연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약 후보 물질 개발과 임상, 기술수출, 허가 등 신약 개발 전 과정에서 실패를 줄이고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다시 바이오 - 혁신의 파이프라인
- ◆일시 : 10월 24일(목) 오전 9시~12시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최 : 메트로경제
-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metro



G2 무역합의에 코스피 상승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2.79포인트(1.11%) 상승한 2067.40으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51포인트(1.34%) 오른 641.46에 마감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웨이 인수’ 방준혁, 게임·구독경제 두토끼

넷마블, 코웨이 위협 대상자로 인수금액 1조8000억원 규모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웅진코웨이 인수라는 카드를 꺼내며 승부수를 던졌다. 정채된 게임 사업에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웅진씽크빅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넷마블을 웅진코웨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넷마블은 웅진코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자사 미디어행사인 ‘제4회 NTP’에서 발표하고 있다. /넷마블

웨이의 지분 25.08%를 1조8300억원대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양사가 실사를 진행하면 본계약에서 최종 인수가가 정해진다.

코웨이인수 필요자금은 자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올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조72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막대한 현금 보유력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셈이다.

추가 인력 충원이나 넷마블 내 사업 전담부서 신설 여부, 구체적인 라인업 추가 등은 인수

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 사장원 투자전략담당 부사장은 이날 웅진코웨이 인수 관련 컨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넷마블은 다양한 미래사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이고 수익 창출은 제한적 상황”이라며 “코웨이 인수를 통해 향후 스마트홈 영역으로 발전하는 플랫폼형 구독경제 사업을 더해 사업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

검개혁 발표 직후 사의표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심경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밝혔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r

“이동걸, 구조조정 회피… 자회사 늘려 방만경영” 질타

(산업은행 회장)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 국감

“합병관련 사건 아주 최소화해야
사건 말할거면 회장직 그만둬야”

이동걸 “사건 부작용 생겨 사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론에 대해 “사건을 이야기해서 잡음이 일고 부작용이 생긴 건 공개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전제로 합병 이슈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로부터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면치 못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설립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서 당분간 검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할 의사가 없다는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합병론을 철회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정책금융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병 관련해서 회장은 사건임을 주장하는데 그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사건은 아주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사건만 말할 거면 회장직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합병론이 수은 행장 출신인 은 위원장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뼈아프게 받아들이지만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와 관련해서도 책임회피 질타가 이어졌다. 산은은 그동안 사모펀드 형태로 보유하던 대우건설을 KDB인베스트먼트로 넘겼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이 본연의 임무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방만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산은 본연의 임무가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인데 자회사만 들어서 조직을 확장하고 스스로 할 일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책임 회피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매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산은이 출자·관리하는 금호아시아나, 나아가선 한국지엠(GM)까지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2년 정도를 거쳐 시기가 좋아지면 기업가치를 높여 판매하겠다”며 “대우건설이 한번 매각에 실패했을 때 잠재적 매수자를 다 접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매각을 단기적으로는 성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DB인베스트먼트 사장으로 산은 수석부행장 출신이 자리를 옮기는 등 인력과 자금 측면에서 사실상 산은과

한 몸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실무인력은 시장에서 채용한 전문가”라며 “임금체계 때문에 시장 전문가를 (산은이)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GM의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미국 GM 본사가 다른 나라로 물량을 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나온다는 질의에 “트랙스 등 협의 외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GM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제동을 걸 수 없다”면서도 “노사간 협의를 통해 그 물량이 한국에서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 회사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한국GM 노조가 2개월 가까이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사측과 갈등하는 것을 두고 “노조가 긴 미래를 보고 노사 협의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경제부총리)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산업 현장규제 대폭 완화할 것”

정부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규제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총 44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며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 및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현장규제를 대폭

완화 하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 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을 언급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동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생관리계획서 등 다수 자료를 내야한다. 이에 대한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심사 절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 시설 정도로 수소충전소를 제한하고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

은성수 “조선업, 주력산업 되도록 적극지원”

(금융위원장)

부산·경남 조선기자재업체 간담회

“현장 체감효과 중심 지원 할 것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대응해야”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춰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 방문했다. 파나시아는 선박 및 산업설비 관련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 6월 전 최종구 위원장이 방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앞으로 금융지원의 프로그램은 서류상 지원 실적 아닌 현장의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주요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조선업황이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수주는 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부산 친환경설비 조선기자재업체(주)파나시아를 방문해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계 발주량 증가속에 지난 2017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했다. 2016년 22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이던 수주량은 2018년 1312만CGT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수주량은 527만CGT로 수주량으로는 세계 2위, 수주금액(127억불)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조선사업 종사자 수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7월 13만8000명에서 8월 14만명으로

연속 증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품질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조선기자재업체 등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수은과 신보를 통해 20조 5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고, 업무협약 투자금융협의체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금융 등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금융기관 업계의 합심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을 지원해 줄것을 당부하고 업계에는 기술개발·생산성 제고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

“게임 불확실성 아닌 사업 다각화”

>> 1면 ‘코웨이 인수, 방준혁…’서 계속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그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왔다. 실제 넷마블은 카밤, 빅히트 등에 약 2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2015년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상호 지분 투자로 ‘리니즈2 레볼루션’을 탄생시켜 흥행작을 배출했으며 카밤, 잼시티 등 해외 게임사들을 인수했다. 게임 사업뿐 아니라 비게임 사업에 대한 투자도 단행했다. 지난해 4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

식 25.71%를 2014억원에 인수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초에는 국내 게임 1위 업체인 넥슨이 매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넷마블은 게임 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지만 향후 다른 비게임 사업에 대한 M&A 가능성은 열려있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이번 투자는 게임사업 한계나 성장 불확실성이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 쪽 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고용보험 가입자 수 7개월째 50만명대 ↑

고용부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서비스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 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지난 3월 52만6000명 증가한 데 이어 7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씩 증가해

왔다.

특히 50만명이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다.

주로 ‘도소매’(5만1000명),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공공행정’(4만4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컸고, ‘사업서비스’(2000명)도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제조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7000명 줄면서 올해 첫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업계의 일부 실적 부진에

더해 지난 1월부터 일부 사업장이 제조업에서 전문과학기술로 분류돼 7000명 감소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으로 ‘기계장비’에서 4천명이, 중국발 LCD 저가공세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구조조정, 휴대폰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등으로 ‘전자통신’에서 2000명이 줄었다.

다만 ‘기타운송장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국내 조선업이 회복되기 시작해 올해 들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6000명 증가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반도체’(3000명), ‘식품포’(9000명), ‘화학제품’(4000명) 등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 |
|-----|------|
| 넷마블 | 코웨이 |
| 넥슨 | 블록체인 |
| 엔씨 | AI |

非게임에 베팅하는 게임업계... 新성장동력 정조준

게임업체 넷마블이 국내 1위 생활가전 및 렌탈업체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에 선정되면서 양사 간 시너지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게임과 렌탈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에 직접적인 사업 접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넷마블 입장에서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라는 신(新)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넷마블의 품에 안길 웅진코웨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생활가전업체 1위 기업이다.

1989년 웅진그룹에서 태동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핵심 사업군으로 하면서 2011년부터 새로 진출한 매트리스 렌탈은 침대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몸집을 키우며 기회 때마다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해 왔다.

청호나이스, SK매직, 쿠쿠전자, LG전자 등 대·중견기업 등이 웅진코웨이의 경쟁자이지만 관련 매출 규모면에선 코웨이를 넘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수기(약 37%), 공기청정기(약 24%), 비데(약 28%) 부문 등을 모두 석권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2조 7073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올해 '매출 3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544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

넷마블, 스마트홈 디바이스 등 '구독경제' 사업 시너지 기대
넥슨, 레고·유아용품 등 다각화
엔씨, AI 강화로 '종합 IT' 목표

아 법인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현재 70.3%나 성장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가 앞서 내놓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2조 980억원, 영업이익은 7175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웅진코웨이의 총 계정수는 국내·외를 합해 지난해 말 현재 700만 개를 돌파했다. 매년 7%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면서 올해의 경우 750만 계정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게임과 웅진코웨이 렌탈사업의 시너지다. 넷마블은 웅진코웨이 인수 시너지로 구독경제를 꾀했다. 자사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게임 사업에서 확보한 IT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해 스마트홈 구독경제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구독경제란, 신문이나 잡지를 매달 구독하듯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무제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넷마블은 넷플릭스형 콘텐츠 구독경제에서 향후 실물 구독경제, 스마트홈 영역이 각광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약 5300억 달러(약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장 렌탈사업과 게임사업이 어떻게 접목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게임의 주 소비층은 10~30대로, 렌탈사업에 비해 소비층이 제한돼 있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게임사업이 가구보다는 개인 중심일 뿐만 아니라 주력 연령층이 젊은 남성층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당장 스마트홈의 주력 가구층과 달라 스마트홈과의 시너지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넷마블 측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모델 접목과 관련해서는 인수 후에야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미지수로 남겼다.

다만, 이번 인수로 넷마블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 흥행을 예측할 수 없는 게임 사업의 불확실성을 웅진코웨이의 안정적인 렌탈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받아 보완할 수 있는 셈이다. 모바일게임이 주력인 넷마블은 '턴전애포터'

의 넥슨, '리니지'의 엔씨소프트 등에 비해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이 낮다. 2017년 상장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13조 5000억원에 달했지만, 현재 7조 9000억 원대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6% 감소한 241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서장원 부사장은 "넷마블이 게임사업 운영하면서 AI를 이용한 유저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노하우를 코웨이가 운영 중인 모든 제품에 접목해 스마트홈 디바이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존 사업에 구독경제 모델이 더해져 향후 넷마블 사업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력 사업인 게임에서 눈을 돌려 종합정보기술(IT) 업체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사업자는 넷마블뿐이 아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 다각화 M&A에 나서는 업체는 넥슨이다. 최근 매각이 무산된 넥슨은 한국을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

이끈 주역이지만, 모바일게임 매출 성장이 더뎠고 이렇다 할 대작을 내놓지 못하며 외화내빈(外華內貧) 상태에 놓였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는 지난 2013년 블록완구 레고 거래 플랫폼 브릭링크를 출발점 삼아 노르웨이 유아용품 업체 스토케, 2017년 국내 1호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이탈리아 펫푸드 업체 아그라스텔릭을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랩 등을 품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 사이트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은 지난 4월 기존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사명을 바꿨다.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NHN은 2014년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출시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11년부터 AI 연구를 시작해 2016년 AI센터와 NLP센터로 내부 조직을 확대해 AI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는 최근 게임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구하기의 일환"이라며 "신작 게임들의 흥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 게임 판호(발급권) 발급이 막혀 확장성이 막히고, 세계 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등의 악재가 겹쳐 향후 게임사들의 비게임사업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김승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두부제조 뛰어난 '자산 9조' 군인공제회... 업계 "시장교란, 철수해야"

중소협동조합 해우소

'해우소(解憂所)'란 절에서 화장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근심이나 우울한 기분을 푸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기업수의 99.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늘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숙제도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규제에, 때로는 보다 큰 기업들의 공격에, 때로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중소기업 활동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해우소 역할을 하기 위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편집자주>



정중호 한국연식식품조합연합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에프앤씨가 급식 등 일반 두부시장에 진출할 것을 두고 회원사 관계자들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두부,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품목
비영리법인 틈새 이용해 시장 진출
군납 제조서 수입공으로 영역 확장
소매시장 진출엔 中 小 企 塔 격 불가피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관련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14일 한국연식식품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자회사인 엠플러스에프앤씨(엠플러스F&C)를 통해 수입공을 이용, 두부를 제조해 군납을 넘어 일반 단체급식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중소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엠플러스F&C가 마트

등 일반 두부시장 진출 추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출자해 2015년 설립한 엠플러스F&C 역시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당초 엠플러스F&C는 두부, 순두부, 콩나물, 전두화·전두복 등 군수품 등을 제조해 군에 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 탄생했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침범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두부, 순두부의 경우 엠플러스F&C는 국산콩을 이용한 군납 식품만 제조해왔다. 그러다 수입콩까지 영역을 넓히며 이를 이용한 두부 등을

제조해 급식 및 일반 소매시장 등으로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단체급식과 일반 소비자들이 찾는 마트는 중소기업과 영역이 겹치는 점점이다.

정중호 연식식품조합연합회장은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비영리 특수법인임을 망각하고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하고 있는 두부시장까지 진출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엠플러스F&C는 수입공으로 제조한 민간 두부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식식품조합에는 전국의 10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이들 조합에는 두부류를 생산, 가공,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 1500여 곳이 속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약 7000억원 규모인 국내 두부시장에서 수입공은 70%가 약간 넘는 5000억원 정도다. 2016년 당시 수입공을 838톤(t) 정도 들여온 엠플러스F&C는 2017년엔 739t, 2018년엔 1103t의 콩을 중국 등 해외에서 각각 들여왔다.

엠플러스F&C는 지난해 5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산콩을 활용한 제품 매출은 약 210억원, 수입콩 제품은 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수입콩 시장에서 차지하는 엠플러스F&C의 매출 비중은 전체 시장(5000억원)의 1% 정도로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다.

연식식품조합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100% 자금을 낸 엠플러스F&C는 모범인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들은 상상도 못하는 초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등 무한한 자금력을 갖고 있어 제품 가격 후려치기 등을 통해 경쟁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식식품조합 등 관련 중소기업들은 두부를 놓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인공제회와 엠플러스F&C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무차별 사업확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에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식식품조합이 주축이 돼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엠플러스F&C는 이날 연식식품조합의 대응에 대해 "2016년 이후 군납 두부가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했고, 이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 본사의 매출도 대폭 감소해 자구책 일환으로 민수시장 진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B2B사업인 단체급식업체 위주로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경쟁하고 있는 B2C시장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中企 정책기조 전반 개선필요”

》1면 ‘中企 위한...’서 계속

다만 올해 지역별 지원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기 31.2% ▲서울 20.4% ▲경상도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도 6.4% ▲대구 5.2% ▲전라도 2.9%로 대부분 수도권에 편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풀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기업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실제 해외펀딩 중개 금융기관은 총 14곳이지만, 이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대구은행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316억원으로 지난해 5797억원 대비 195.2% 급증했다.

중소기업 ‘경영 불모지’라는 인식이 커진듯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에서 해외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진출한 기업이 국내 투자 환경 등이 좋지 않아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 환경은 국내와 국외 중 어디가 좋는가’ 질문에 답변한 기업 216곳 중 76.9%인 166곳은 ‘국외가 좋다’고 답변했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가 78.7%로 ‘있다’ 18.1%보다 4배나 많았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시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 기업 115곳 중 ‘세제 혜택’이라고 답한 기업이 48.7%로 가장 많았다. 중복응답을 포함해 ‘금융지원’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도 56%에 달했다.

국내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 지원 사업으로 취업한 3명 중 1명이 1년도 안 돼 퇴사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2657명이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진공이 올해 2월 해당 사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2.3%에 불과했다. 청년 37.7%가 1년도 채 안 돼 퇴사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한달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자습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1일 앞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랑진종로학원에서 한 수험생이 자습하고 있다.

LTE 다운속도, 수도권서도 최대 3배 차이

최저 71.77Mbps, 최대 201.85Mbps

‘4세대 이동통신 기술(LTE)’ 저장 속도 차이가 수도권 안에서도 최대 3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TE 서비스 지역별 품질 서비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지역 내 LTE 다운로드 속도는 지역별 최저 71.77Mbps, 최대 201.85Mbps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은 71.77Mbps로 수도권에서 가장 느렸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74.37Mbps)

과 양주시 광적면(74.83Mbps) 등도 전국 평균(150.68Mbps)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시는 조사대상 10곳 중 연수1동(160.53Mbps)과 계양구 계산1동(155.64Mbps)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전국 평균 속도보다 낮았다.

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으로 201.85Mbps였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196.58Mbps), 서울시 은평구 불광제2동(183.48Mbps),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80.37Mbps) 등으로 집계됐다.

/석대성 기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연기 기자간담회

“2020년까지 70% 상환할 것”

“원금·이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펀드의 추가적인 하락 없을 것”
손실 확정보다는 펀드 상환 연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말까지 70% 이상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펀드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연기한 펀드는 모두 93개 총 8466억원 규모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만기가 돌아와

만기 시 상환금의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펀드가 4897억원(56개)이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최대 1조3363억원의 환매 연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CB나 BW 등 메자닌에 투자한 코스닥벤처펀드 1770억원만 만기 상황에 따라 환매 및 상환 연기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매 연기 금액은 최소 1조 1593억원에서 1조336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원 대표는 “최근 코스닥 침체와 기업 관련 풍문 등으로 기업 주가가 크게 내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의 저가 매각으로 손실을 확정짓기 보다는 펀드

환매 상환을 연기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내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필 부사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사장은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득을 봤던 파티들이 우리가 어려워지니 등을 돌린 것이 기승아프다”면서 “유동성이 힘든 상황에서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막아두면 레버리지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사모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지누스, 14년만에 코스피 재입성

美 온라인 매트리스시장 30% 점유
2015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업체
“20년 내로 100억 달러 매출달성”

글로벌 온라인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자 지누스가 코스피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지누스는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생활 가구업체로 2015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업체로 선정됐다. 2005년 재무 악화로 상장 폐지된 지 14년 만에 재입성하게 됐다.

지누스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년 내로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상장계획을 공개했다.

1979년 설립해 올해 40년째를 맞은 지누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매트리스와 침대 등 가구 사업을 운영해왔다. 2005년엔 세계 최초로 침대 프레임 소형 박스 포장형으로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했다. 미국 시장에 수출을 시작한 것도 이때다. 현재는 매장 위주로 판매하던 침대 시장에서 아마존닷컴과 월마트닷컴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27.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윤재 지누스 대표는 “아마존 침실 가구 베스트 20에서 평균 9.5개가 선정

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그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기업 위상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옴니채널로 진출해 2039년까지 100억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누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6217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30억원, 436억원을 기록했다. 14일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시가총액 1조 806억원으로 포스코건설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가구시장에서도 연평균 3.6%씩 성장해왔다.

이 대표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딛고 이 자리에 섰다”며 “상장폐지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누스를 믿어준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누스 총 공모 주식 수는 전체 상장 예정 주식(1천464만6천140주)의 20.6%인 302만860주다. 공모 희망가는 8만원~9만원, 총 공모 예정 금액은 2417억원~2719억원이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한 뒤 이달 21일과 22일 청약 공모를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송태화 기자 alvin@

2015년 안심전환대출 10명 중 3명 중도포기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과거 상품과 구조가 같아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나 약 4년 만에 8만8833명(30.2%)이 대출금을 만기 전 중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이었고, 연봉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전환해 시중보다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나온 상품이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을 했다가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주 기자 hj89@

부·울·경, 혁신금융 메카로... BNK금융, 5000억 지원

(5년 간)

하나아이티엠 등 5개社 업무협약
혁신기업 육성 위해 투자 활성화

유스페이스BIFC에 핀테크랩 배치
펀드조성 등 핀테크 유니콘 산실로



김지완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안쪽 두번째)이 부울경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세번째) 등과 포즈를 취했다. /BNK금융

BNK금융그룹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혁신기업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BNK금융그룹은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울경 혁신기업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을 가졌다. 혁신기업은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중 4차 산업관련 기업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기업 ▲부울경지역 주력산업(항공산업 등) 관련 혁신기술 보유 기업 등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울경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자동차분야가 부진해 지역경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주력 산업 개선만큼 혁신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해 창업 분위기를 조성, 부산의 성장을 주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부울경 경제침체가 3년간 지속되면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필요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열악한 창업생태계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이번 협약이 마중물 역할을 해 부울경 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고, 혁신기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300~500억 원 가량의 혁신기업 투자펀드도 조성해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성장금융 간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혁신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이날 BNK투자증권은 혁신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5개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은 하나아이티엠 세종이앤씨 자이언트케미칼 리센스메디컬 디에이콘트롤스 등이다. BNK투자증권은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마련과 투자조성 펀드를 운용한다.

아울러 BNK금융그룹은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금융관련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부산시와 BNK금융그룹이 협업해 만든 유스페이스 BIFC(Unicorn-Space BIFC)에 BNK핀테크랩을 배치하고 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전문적인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전문 펀드운용사와 공동으로 부울경 스타트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끌어 나간다.

스타트업 지원센터 씬인큐베이터(SUM Incubator)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문을 연 ‘유스페이스 BIFC’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지원 공간이다. 입주 핀테크 기업에 사무공간 인건비 지원부터 투자지원, 컨설팅 위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투자유치 연계 등이 유스페이스 BIFC를 핀테크 유니콘의 산실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또 금융중심지 부산의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아 부산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금융위도 일관성을 가지고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제도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3000억원 규모) 조성 등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직장인 위한 24시간 365일 대출상품 출시

NH농협은행 ‘올원 직장인대출’

NH농협은행은 직장인을 위한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 상품 ‘올원 직장인대출’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원 직장인대출’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농협은행 입출식계좌만 있으면 은행 방문이나 소득증빙서류 제출 등이 필요없이 NH스마트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 한도 및 금리조회와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추후 올원뱅크 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정보



를 수집하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재직여부와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한도와 금리를 산출한다.

대상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법인기업체 재직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안상미 기자

페이북으로 해외주식 간편투자 하세요

비씨카드, 복잡한 절차 개선
소수점 단위까지 주문 가능

비씨카드가 간편결제 앱(이하 ‘페이북’)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공 중인 해외주식 간편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해외주식 투자서비스와는 달리 복잡한 이용절차를 개선해 매매 편의성이 높아졌다. 소수점 단위(0.01주, 단최

소 주문 \$5 이상) 주문도 가능해진 것이 페이북 투자 서비스의 장점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페이북을 통해 페이북 전용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투자 금액을 이체한 후 매매를 원하는 해외주식을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전 및 매매가 완료된다.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21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hong93@

롯데카드

MLB 협업 한정판 카드

롯데카드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과 협업해 한정판 디자인 카드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KIT X MLB 스페셜 에디션’ 상

품은 MLB 구단의 심볼과 유니폼의 요소를 활용해 디자인한 신용카드 4종, 체크카드 2종, 웨어러블 4종, 기프트카드(10만원권) 6종이다.

이번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카드는 신용카드와 웨어러블은 14일부터, 체크카드는 25일부터 롯데카드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민영 기자

신한銀, 네이버 AI기반 금융서비스 확장

디지털 기반 신규사업 발굴 등
네이버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네이버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기존 지능형 고객상담센터 구축 등의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언어·음성·이미지 인식 및 처리 기술을 고도화해 AI 적용한 금융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반 신규 사업 발굴도 협업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네이버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적용해 은행의 문서 처리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 안면 인식 등 신기술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와 서비스를 융합해 금융솔루션을 개발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채널 확장에도



14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전략적 제휴 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신중호 네이버 서치엔지니어링 CIC 대표 겸 라인 주식회사 공동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함께 나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능형 콜센터 서비스 구축과 문서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AI 기술을 접목해 향후 많은 영역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인공지능 챗봇 ‘솔메이트 오로라’를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여신 자동심사 모형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권 관계형금융 잔액 8.3조... 전년말比 9.5% ↑

장기대출이 대부분 차지
낮은금리로 부담 완화 효과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관계형금융 취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관계형금융 잔액은 8조288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5%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3.8%의 2.5배 수준이며, 장기대출이 8조266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계형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72조1000억원 대비 관계형금융의 장기대출 비중은 1.14%다. 지난 2016년 0.68%에서 2017년 0.90%, 2018년 1.0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능력이 취약한 저신용 중소기업들도 관계형금융을 통해 장기대출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상반기 말 관계형금융 평균 대출금리는 3.67%로 전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3.81%)보다 낮아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대형은행 그룹 가운데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공급규모(누적 공급금액, 업무협약 체결건수 등)와 공급유형(신용대출 비중 등) 모두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농협은행은 누적공급금액, 저신용자대출 비중 등에서 다소 미흡했지만 공급증가율, 초기기업 비중 등이 우수했다.

중소형 그룹 가운데서는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이 각각 우수은행 1, 2위로 선정됐다. /안상미 기자

“ESS화재 막는다”... 안전성 재점검, 특수 소화시스템 적용

삼성 SDI 대책 발표

안전성 강화 대책 이달 중 마무리
종합대책 관련비용 전부 자사부담
“발화에도 화재 확산 근원적 차단”

삼성SDI가 대대적인 안전성 강화 조치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신뢰 회복에 나선다.

삼성SDI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ESS 화재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밝혔다.

ESS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외부 유입에 따른 고전압·고전류를 차단하고 이상 발생시 시스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이달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예기치 않은 요인에 따른 화재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수 소화시스템’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허은기 삼성SDI 시스템개발팀장은 이미 설치·운영중인 국내 전체 사이트의 안전성 종합 대책 관련 비용을 전부 자사가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SDI가 지난 1년 동안 국내 전 사이트들



허은기 삼성SDI 시스템개발팀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상으로 시행해 온 ▲외부의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3단계 안전장치 설치 ▲배터리 운송이나 취급 과정에서 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부착 ▲ESS 설치 및 시공 상태 감리 강화와 시공업체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배터리 상태(전압·전류·온도 등)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 운전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안전성 종합 강화 대책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



삼성SDI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허은기 팀장은 현재 실행 중인 안전성 강화 대책이 전력 전환장치, 시공 설치 및 운영 과정 등 ESS 시스템 내 배터리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기치 않은 요인에 의해 ESS 시스템 내 발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소화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를 신규로 판매하는 시스템에 전면 도입하고 이미 설치·운영중인 국내 전 사이트에 대해서는 모두 삼성SDI가 비용을 부담해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 소화시스템은 침단약품과 신개념 열확산 차단재로 구성되며 특정 셀이 발화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화시키고 인근 셀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

은 미국 국제 인증 기관인 UL의 최근 강화된 테스트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SDI는 이를 생산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최단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ESS 화재 원인에 관계 없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글로벌 리딩 업체로서의 책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ESS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ESS 화재의 또 다른 당사자인 LG화학도 이날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외부의 전기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듈퓨즈·서지 프로텍터·랙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절연에 이상 발생시 전원을 차단시켜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인 ‘IMD’를 함께 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재 확산 방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기존 사이트는 이미 교체 지원됐고 신규 사이트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G전자,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UL인증

국내 최대 출력·최고 효율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양면발전(Bifacial) 태양광 모듈에 대해 UL 안전 규격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1995년 태양광 연구를 시작한 LG전자는 2010년 태양광 모듈을 양산, 출시하며 태양광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6년엔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양산에 성공하며, 이 모듈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7월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전체 모델에 대해 ‘UL1703’ 인증을 받았다. ‘UL1703’은 평판식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안전 규격이다. 이 인증은 미국 공식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태양광 모듈에 대해 엄격한 안전 심사를 거친 후 적합성이 인정될 경우



‘UL1703’ 인증을 받은 LG전자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제품 이미지(모델명: LG425N2T-V5).

부여된다.

LG전자는 ‘UL1703’ 인증 획득으로 태양광 모듈 설치 및 인허가를 받을 때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출 활동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K(주) C&C, 클루쿠스 지분 19% 인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 생태계 확대 박차

멀티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확장
국내외 멀티 클라우드 고객 확보

SK(주) C&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국내 1위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MSP)인 클루쿠스와 손잡고 국내외 멀티 클라우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선다.

SK(주) C&C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멀티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확산을 위해 클루쿠스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SK(주) C&C는 클루쿠스의 지분 18.84%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지분 인수는 SK(주) C&C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제트와 AWS·MS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을 연계한 멀티 클라우드 사업 확장의 일환이다.

SK(주) C&C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외 전문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연계한 멀티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는 한편, 다양한 클라우드 에코 파트너사들과 함께 전 산업에 걸쳐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 성공 사례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SK(주) C&C는 주요 계열사의 수요에 맞춰 AWS·MS 애저·IBM·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한 데 묶으며 사별로 최적화된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 및 운용 체제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SK그룹은 2022년까지 SK 계열사의 주요 시스템 중 약 80%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SK(주) C&C는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SK(주) C&C는 ▲멀티클라우드 서버

스 개발 ▲애플리케이션 별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및 통합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신규 사업 발굴도 본격화한다.

IBM·MS 애저·AWS·구글 클라우드는 물론 고객이 자체 운용 중인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하나로 묶으며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SK(주) C&C는 클루쿠스를 시작으로 국내외 여러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에 대한 지분투자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업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대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서비스 개발 및 운용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낼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로템, 하천 건너는 전차 수출 추진

터키 업체와 기술협상 마쳐
최신에 고성능 제품 국산화

현대로템이 국내 첫 자주도하장비 수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방위사업청의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터키 업체와 기술협상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전투 지원차량으로 전차와 장갑차 등 기동부대가 하천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차량이다.

지상에서는 차량처럼 운행하며 수상

에서는 개별 차량이 기동부대를 싣고 배처럼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문교 방식과 여러 대의 차량을 연결해 교량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교 방식으로 운용한다.

국내 첫 자주도하장비 도입 사업을 위해 현대로템은 영국 BAE시스템즈와 터키 FNSS가 공동 개발한 자주도하장비 ‘AAAB(Armored Amphibious Assault Bridge)’를 개량, 국산화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이미 터키에서 입증된 최신에 고성능 제품을 국산화에 제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한화, ‘첨단·지능·무인’ 무기솔루션 전시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한화그룹 방산4사 통합 전시관 운영

한화그룹 계열 방산4사는 오는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9)’에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은 총 1320㎡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한화 4.0’을 슬로건으로 첨단화, 지능화, 무인화 솔

루션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또 대화력전 핵심 전력인 230mm급 다연장 로켓체계 ‘천무’와 M3 자주도하장비의 실물과 함께 공대지 유도탄 ‘천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의 모형도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첨단화 솔루션으로는 레드백 장갑차와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 개인전투체계, 차기 대공화기 등이 전시된다. 특히 레드백 장갑차와 레이저 무기체계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다.

지능화 솔루션 분야에서는 탄도탄자 전통제조(KTMO-CELL) 성능개량 사



한화 방산계열사 전시부스.

업, CR 무전기 실험 모델 등을 선보인다.

국방로봇,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드론탐지센서 등 전시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무인화 솔루션도 전시된다. /양성운 기자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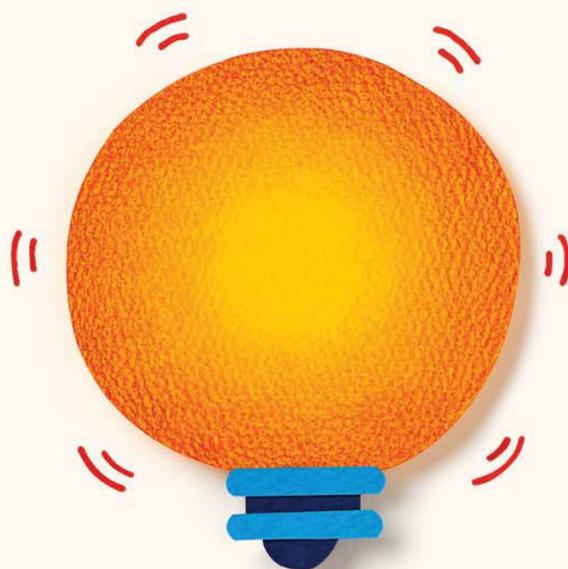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온

:기업과사회가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스위치를 ON!
온 세상의 행복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뜻함

다양한 사회적 가치로
'온' 세상의 행복을 'ON' 시킬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기업결합심사·수주·임단협... 현대중 '산 넘어 산'

공정거래 한 곳이라도 불허시 무산
올해 선박 수주 목표 달성 불투명
노사 협상 타결 無·줄다리기 지속

현대중공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외에도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올해 선박 수주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지만 해결이 순탄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심사, 일본 찬성 여부 관건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두고 '기업결합심사'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 간의 M&A(인수 및 합병)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 곳이라도 인수를 불허하면 매각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는 매머드급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일본의 심사다. 일본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인수에도 불똥이 튀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서 지난 6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공적 자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한국 조선업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임한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장은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 공정위가 (대우조선) 인수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 수주 절반 가까이 달성, 100%

원료 여부는 미지수

올해 선박 수주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방위사업청과 총 6766억원 규모의 '광개토-III Batch-II 상설설계, 선도합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3척 중 첫 번째로,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4년 11월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

해 총 77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연간 수주 목표 159억달러의 48% 가량을 달성했다.

또한 그리스 캐피탈해운과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14척 건조 계약 협상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 수주까지 따낼 경우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수주 목표치를 완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다.

◆임단협 난항, 연내타결 여부 불투명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1일 제 16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에선 법인분할 투쟁, 하청 노동자 요구안 등을 두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탓에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은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는 오는 11월부터 노조 집행부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때문에 이달 내사

협의 교섭안 제시가 임단협 타결의 관건이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에 더해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학자금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인 현대미포조선도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을 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5월31일 상견례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23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867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250%+ α ,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환경이 나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주기 힘들다며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대한항공, 재충전 돕는 단기 휴직제도 시행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
1회에 한해 추가 3개월 연장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그렇지만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미르숲 음악회', 세대불문 음악 향수 선사

현대모비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현대모비스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에 조성한 친환경 생태숲인 미르숲에서 '2019 미르숲 음악회'를 개최했다.

14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퍼퓸-포레스트 : 향수'라는 콘셉트로 미르숲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세대의 음악적 향수를 선사한다.

현대모비스는 숲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했다. 지난 주말에는 시대를 넘나드는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한 가수 인순이씨와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밴드 몽니의 무대가 진행됐다. 이 공연은 1000여명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주말에는 가수 신효범씨와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팝페라 앙상블 DS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모비스는 음악회 전후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전문 숲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거닐면서 미르숲의 아름다운 경관과 숲 속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숲 거닐기' 프로그램,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아로마테라피와 운동, 차 마시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힐링숲피어' 프로그램이다.

미르숲은 현대모비스가 진천군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전 및 복원을 위해 30만평 규모로 조성한 친환경 생태숲이다.

현대모비스의 박병훈 문화지원실장은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나와, 가족과 숲의 향기와 음악으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G4렉스텐·티볼리' 등 쌍용차, 캠핑족 주목

Advertorial Corner

'티볼리' 가벼운 캠핑에 안성맞춤 '코란도'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SUV 명가' 쌍용차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다양한 활용성과 안전성, 소형·준중형·대형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9월까지 누적 기준 내수 판매량은 총 7만99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8072대)보다 2.4% 증가했다. 코란도 가솔린 모델과 렉스텐 스포츠 등이 판매를 견인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200여원을 기록했던 캠핑시장은 10년이 지나 1조7000억원대로 대폭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승용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성장세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쌍용차의 모델별로 매력을 분석해봤다.



쌍용차 G4 렉스텐.



쌍용차 티볼리 후측면.

쌍용차의 막내 티볼리는 도심이나 서늘한 캠핑장에서 즐기는 가벼운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에게 제격이다.

신형 티볼리는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이동하기에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동급 최대 전폭(1810mm)을 기반으로 넉넉한 2열 공간을 확보해 탑승자의 안락함을 극대화했다.

코란도는 가을철 가족 캠핑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코란도 가솔린은 여유로운 1~2열 탑승자 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승차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한다.

특히 1.5L 터보 가솔린엔진은 2016년 4월부터 37개월 정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으로 배기량과 기동성을 줄이면서도 부족한 성능을 보강해 강력한 출력과 높은 연비를 동시에 달성했다. 또 높은 친환

경성을 인정받아 국내 SUV 최초로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획득해 혼잡통행료와 공영·공항공차장 이용료 50~60% 감면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여유로운 '글램핑'을 즐기는 40~50세대는 G4렉스텐을 추천한다. 2020년형 G4 렉스텐은 편안하면서 소음 없는 주행에 적합한 친환경 e-XDi220 LET 디젤엔진과 E-트로닉 벤츠 7단 자동변속기를 결합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차박캠핑'을 즐긴다면 최고의 궁합은 렉스텐 스포츠 브랜드다. '차박캠핑'에는 차에서 잘 수 있는 큰 용량과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퍼포먼스 양쪽이 필요하다. 렉스텐 스포츠 브랜드는 이를 모두 만족하게 해주는 차종이다.

/양성운 기자 ysw@

아시아나 '색동크루' 공개... 굿즈 등 활용

아시아나항공이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색동크루' 캐릭터를 공개하고 이모티콘, 로고상품, 광고, 기내 굿즈 등에 활용한다.

색동크루 캐릭터는 '세계여행을 꿈꾸는 모험가'를 콘셉트로 제작됐다. 색동크루의 '색동'은 아시아나항공기를 귀엽게 형상화한 캐릭터, '두리'는 구름을 모티브로 색동이와 함께 자유롭

게 하늘을 날며 여행하는 캐릭터다.

'지미슨'은 여행 가방을 컨셉으로 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담고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동식'은 색동이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색동이와는 다른 성격의 캐릭터다.

아시아 '색동크루' 캐릭터는 이모티콘을 시작으로 로고상품, 광고, 기내 굿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 색동크루 이미지.

소·부·장에 1천억 투자 '애국펀드 II' 출시

〈소재·부품·장비〉

금투협 "기술·생산 증설자금 절실
새로운 펀드상품 업계와 협의중"
상장·비상장 중기 모두에 투자



14일 여의도 금투센터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인모 금투협 전무가 펀드 출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금투자협회가 업계와 손을 잡고 '제2의 애국펀드'를 내놓는다. 내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사모 재간접 펀드가 탄생할 전망이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14일 "우리 기업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생산능력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투자업계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역량을 국가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펀드 상품을 업계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총 1000억원 규모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방식으로 조성된다. 상장사 뿐만 아니라 대출이 쉽지 않은 역량 있는 비상장사 중소기업에도 원활하게 투자하기 위함이다.

펀드 만기는 3년이며 정해진 수량만

금 청약을 받고 클로징(모집 마감)해 폐쇄형으로 설정된다.

지난 10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소액으로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7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 300억원은 한국성장금융에서 부담한다. 펀드의 투자 안정성을 위해 사모펀드는 선순위 투자

자, 한국성장금융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태수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은 "성장금융이 하락 리스크를 부담한다"면서 "전체 30% 수준의 손실은 우리가 먼저 받아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를 설정 90일 이내에 거러소에 상장해 환금성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소재·장비·부품 기업이 대체로 작고 왜소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크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성장금융에서 커버해준다"면서 "폐쇄형이라도 거러소에 상장함으로써 환금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질 펀드는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내놓은 공모펀드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의 후속타 격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수탁고 873억원을 올리며 순항 중이다. 출시 당시 금투협은 "다른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필승코리아 펀드'와 차이에 대해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사모 재간접 구조여서 투자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해당 회사 주식 등에 직접 들어간다"며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의 차원에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펀드 운용에는 성장금융뿐만 아니라 벤처 조합도 참여할 계획이다. 성인모 금투협 전무는 "공모 운용사의 경험, 사모 운용사의 전문성, 벤처 캐피탈의 비상장기업 소싱(sourcing) 능력 등이 조화돼 국민 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협이 제안한 공모펀드 신상품은 금융투자업계의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 출시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는 성장금융 주도로 12월경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하나금융투자 국내주식CFD 서비스 오픈

하나금융투자는 국내주식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의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의미한다.

CFD를 통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낮은 증거금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도 매도의 포지션 구축을 통해 헤지를 할 수 있다. 별도 청산을 하지 않아도 낮은 금리로 장기간 포지션 보유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시장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엄지 기자

비상장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전용플랫폼 나온다

삼성증권-답서치-답나무, 협력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출시



두나무·삼성증권·답서치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전용 플랫폼이 선보이면서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거래 위험성을 덜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과 답서치, 답나무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장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며 비상장 증권정보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출시를 위해 3사가 협력했다. 두나무는 플랫폼 기획·개발과 함께 기업 정보 발굴팀을 신설해 거래 종목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실물매물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지원하며, 답서치는 최근 30

년간의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담당했다. 투자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허위 매물 거래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고, 유망한 비상장 기업 주식을 확보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

이성현 두나무 핀테크사업실장은 "비상장 주식시장에 믿음직한 채널이

없었다"며 이번 플랫폼을 출시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거래가 진행되고 대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유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용수 삼성증권 디지털채널본부장

은 "최근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비상장 주식 시장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운 답서치 대표 역시 "상장 기업들의 경우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지만 비상장 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비상장 기업뿐 아니라 경쟁사들까지 볼 수 있다.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자들이 더욱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플랫폼 서비스는 이달 말 정식 출범한다. 3사는 내년 상반기엔 블록체인의 도입해 모든 거래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최대 4000여 개에 달하는 통일증권 발행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



KB증권 8주간 실전투자대회 개최

KB증권은 14일 '제6회 KB증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 참가 신청 고객이 5000명에 육박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6회 KB증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는 이날부터 12월 6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KB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11월 22일까지 KB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앱(MTS) 및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순위를 가리는 것이 특징으로 '통합리그(1억·3천·1백리그)'와 '대학(원)생리그(1백리그)'로 나누어 실시한다. /손엄지 기자

외국인, 국내 주식시장 두달째 매도세

지난달 상장주식 9150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두 달째 매도세를 이어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외국인 순매도액은 9150억원에 순매도해 8월 이후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400억원, 17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원)과 아시아(-8000억원)에서 순매도한 반면 중동(3000억원)과 미국(2000억원)에서 순매수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1000억원)과 싱가포르(-1조1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등이 순매도했다. 캐나다(2000억원), 미국(2000억원), 호주

(2000억원) 등은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9월 말 기준 555조8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8조10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6조6850억원의 영향으로 총 1조4160억원 순투자했다. 지난 8월 이후 순투자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4000억원), 중동(1000억원), 미주(20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2000억원)에서는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국채(1조4000억원), 통안채(1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잔존 만기 1~5년미만(4조5000억원), 5년이상(1조2000억원)에 주로 투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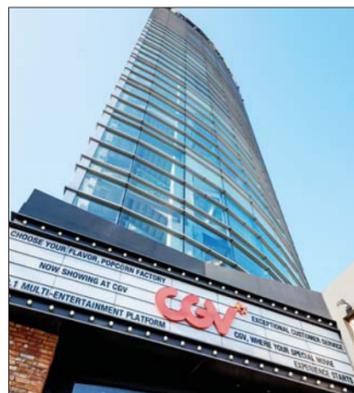
이지스자산운용 '대학로CGV 부동산 공모펀드'

이지스자산운용은 '대학로CGV 부동산 공모펀드(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299호)'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펀드에 투자하는 대학로CGV 영화관 건물은 서울 주요상권 중 하나인 혜화역과 성균관대를 잇는 대학로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임대율 100%를 달성하고 있다.

대학로CGV는 8개관 973석의 규모의 영화관으로 2008년 CJ CGV가 책임임대차 계약 체결 후 11년간 성업 중에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량 입지의 장점과 인근에 풍부한 유동인구 및 배후수요를 보유하여 추후 안정적인 매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로CGV 전경. /이지스자산운용

고 밝혔다. 펀드 설정기간 대비 잔여임대차기간이 2배 이상 길어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총 상금 1.7억 '투자대회'

키움증권은 '2019 키움 영웅전 실전투자대회'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상금 1억6735만원 규모인 이번 대회는 주식리그와 선물옵션리그로 나눠서 진행된다. 주식리그는 각각 1억원, 3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클럽으로 구성됐다.

대회기간 동안 주식 거래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회 기간 주식거래 금액 1, 2, 3위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순금항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일정 거래금액을 충족한 고객들 중 30명을 추첨해 6주간 180명에게 인당 현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송태화 수습기자

사상 최저 年1.25%금리 나오나... “제로금리 시대 임박”

한은 내년 통화정책에 관심집중 전문가, 기준금리 1.0%까지 전망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거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면 연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본격적인 초저금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명문은 많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이어 'D(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의 공포'까지 번지고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성장률의 전망치(2.2%) 달성이 녹록지 않다”며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낸 상태다.

◆기준금리 내리면 1.25% '사상 최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6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전세계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지난 8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이는 지난 7월 3년 만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내리는 셈이다. 연 1.25%는 우리나라 역대 최저 기준금

리다.

지난 11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1.28%로 현재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통상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인다. 이미 채권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는 의미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인하 신호는 꾸준히 나왔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

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둘기(통화완화 신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또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0.25% 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금리동결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데 동의한 데다 7월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제로(0)금리’ 시대 오나

시장에서는 10월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인 11월에는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금리인하가 확실시 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0%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0%대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제로금리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특히 미 연준이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

75~2.00%로 0.25% 인하한 이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지난 8월 금통위 이후 여러 공식 석상을 통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준 만큼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이번 10월 인하를 마지막으로 기준금리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내년 초 추가 인하를 단행해 1% 기준금리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는 물가보다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산출갭이 더 유효하다”며 “내년 전망치를 대입해 산출갭을 구해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단기간에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며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을 고려해보면 내년에는 기준금리 1% 이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과기정통부, 데이터·AI 활성화 발표 (인공지능)

APEC TEL 정례회의

정책공유 통한 협력방향 모색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 하반기 정례회의'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데이터·AI 활성화 발표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그룹은 아·태지역 내 정보통신분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정부 대표,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행사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 및 '5G 플러스 전략'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역내 정책 공유를 통한 정보통신기술 분

야의 협력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 행사의 개회사를 통해 “APEC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운정 기자 echo@

한수원, '계획예방정비' 3년간 823건누락

작업 수행이력 확인불가 가장 많아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원전관리에서 계획예방정비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관리 실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진행했던 원전 계획예방정비에서 정비항목을 823건이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일정기간마다 원전 가동을 멈추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정비로서 원전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실시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부터 3년간 823건에 해당하는 작업항목에 대해 예방정비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중 ▲이전작업 수행이력의 확인불가로 누락 ▲이후 수행주기를 재등록해야 했던 경우 등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금융기관 심사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완화 대기업·가계는 대출 까다로워져

올해 4분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완화된 반면 대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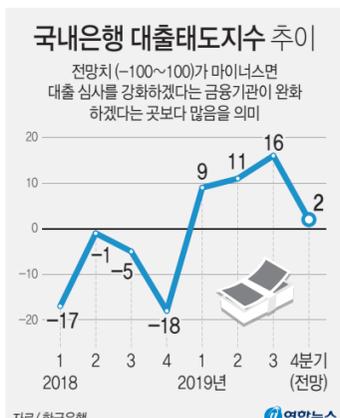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로 3분기(16)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한은이 199개 금융기관 여신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국내 대출태도지수가 낮을수록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4분기 가계 일반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3분기(7)보다 내려갔다.

같은 기간 가계 주택담보대출지수도 3에서 -3으로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2020년 신(新)예대출 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전



망”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도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3분기(10)보다 하락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7로 3분기(27)보다 낮아졌지만 은행들의 우량 중소기업 확보 경쟁 등으로 대출 문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우량 중소기업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스프레드가 줄어들거나 한도가 증액되는 등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3으로 3분기(22)보다 1포인트 올랐다. 신용위험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17로 3분기(10)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의 신용위험도는 10에서 13으로 3

포인트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은 30으로 3분기(33)보다 3포인트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은행은 4분기 중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기업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은행권 대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 하락, 주택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4분기 가계 주택담보대출(10)과 일반대출(13) 모두 대출수요가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수요지수는 0으로 중립이었다.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는 17로 3분기에 이어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비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4)을 제외한 신용카드회사(-13), 상호금융조합(-19), 생명보험회사(-1) 등 모든 업권에서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용위험도 상호저축은행(16), 신용카드회사(19), 상호금융조합(26), 생명보험회사(12) 등으로 비은행 모든 업권에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대출수요는 상호저축은행(-8)과 상호금융조합(-11)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사진 찍을 땐 환하게

“김치~”해야 하니까

김치만 떠올려도 행복해야 하니까

김치는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김치 종가집



“韓 LCC 꾸준히 성장 ‘1주방 1사업자’규제 풀 ‘공유주방협의체’ 설립 시장 위축 회복할 것”

보잉이 바라본 글로벌 항공 전망

LCC 10년새 신규노선 18배
동북아 승객수송력의 핵심
신형 상용기 1420대 필요



랜드 틴세스 보잉상용기 마케팅 부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잉이 국내(한국) 항공 시장에 대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잉은 1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항공 시장 전망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항공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했다. 보잉은 동북아시아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역내 승객수송력과 항공 교통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는 랜드 틴세스 보잉상용기 마케팅 부사장이 맡았다.

랜드 틴세스 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동북아의 LCC 수는 3배, 승객수송력은 6배 증가했다. 특히 LCC들은 지난 10년 동안 231개의 신규 노선을 취항했고 이는 10년 전 대비 18배 성장한 수치”라며 “한국의 LCC들은 승객수송력의 47%를 담당하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의 LCC들은 동북아시아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전체 LCC 교통량의 6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LCC들의 성장세와 역내 대형항공사의 항공기 대체 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20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항공사들이 2038년까지 1420대, 3150억 달러에 이르는 신형 상용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틴세스 부사장은 “향후 20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 도입되는 모든 신형 항공기의 70% 이상이 이같은 대체를 목적으로 할 것”이라며 “지난 여름 파리 에어쇼에서 보잉은 대한항공과 장거리 노선용 상용기를 일부 대체하는 목적

으로 787 드림라이너 3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잉은 글로벌 상용 항공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발표했다. 전 세계 상용 항공 서비스 시장 규모는 향후 20년간 지속 성장해 9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약40%,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5000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항공사는 상용 항공 서비스에 4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한국 항공업계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틴세스 부사장은 “LCC업계가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지정학적인 이슈·외환 리스크들의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항공여객수·교통량 등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항공업은 언제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던 시장이다. 비행을 통한 여행이라는 것이 오늘날 비즈니스에도 필수 요소이고 일상에서도 여가 생활이 중요해져 분명 회복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위국’,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관심 ↑ 24곳 참여… 협의체 내달 출범 예정 위생·안전 등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늘어나는 공유주방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공유주방 협의체가 생긴다.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유주방의 위생점검과 안전 등 문제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공유주방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넷째주 공유주방 업체들이 모여 공유주방 협의체 발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공유주방 가이드라인은 정해졌고, 협의체는 현재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협의체는 오는 11월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주방 1사업자가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은 위법이다. 하지만 요식업 창업이 늘고, 미국 등 해외에서 공유주방이 증가하면서 식당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유주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위국이 공유주방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년간 한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조리할 수



공유 샌드박스 통과로 한 주방에 여러 사업체가 등록할 수 있게 된 위국 사직점. /위국 홈페이지

있게 됐다. 위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유주방들에 자체 관리를 요구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살리고 공유주방을 법제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는 “이 정도는 지켜야 공유주방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다는 것을 정한다”며 “협의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가진 회사들만 공유주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주방 협의체는 공유주방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자체 규정을 만든다. B2B 유통 품목을 주로 만드는 ‘식품제

조형’ 공유주방은 위국이, 배달을 중심의 요식업이 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인 ‘딜리버리형’은 먼슬리키친이, 시간대를 나눠 주방을 사용하는 ‘타임셰어링’은 나누다키친이 대표가 되어 공유주방 규정을 만든다.

공유주방 위국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김기웅 대표는 “첫 회의에 참석한 곳이 24개 정도가 된다”며 “그중 일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곳을 제외하면 협의체 정회원사로 10개 남짓 업체가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스트키친·공유주방1번가·개러지키친·키친24·키친유니온·영영키친·키친엑스 등이 자격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한민 기자 ericbae1683@

“달 탐사사업 반드시 성공 시킨다”

항우연 찾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개발 역량 제고 강조 애로사항 청취 하고 격려



최기영 과기부 장관 /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달 탐사 사업에 대한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1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연구자를 만나는 등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궤도선 중량, 연료용량 등 기술적 난제와 연구자간의 이견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항우연 자체점검과 외부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발사일정을 19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나, 연구현장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

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직접 항우연을 찾아 사업단을 찾아 사업단 연구자와 외부 점검평가단 등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최 장관은 국내 최초의 고난도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달 탐사 사업단의 일선 연구원들을 먼저 찾아 오찬을 함께 하면서 연구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 고난도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따르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자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해 줄 것을 격려했다.

이후 임철호 원장과 달 탐사 사업단장 등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한 항우연의 주요 간부진을 만나 달 탐사 사업에 대한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국가 최초의 우주탐사 도전인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간 달 탐사 사업의 객관적 원인 진단 및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점검평가단의 우주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만나, 여러 전문가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다양한 의견에도 가감 없이 귀를 기울였다.

최기영 장관은 “오늘 경청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달 탐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배민, ‘배달용 시간제 이륜차 보험’ 출시

KB손보 등과 맞손… 내달 적용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시간제로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K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업체 ㈜스몰티켓과 손잡고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해 11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3사가 합작한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은 국내 최초로 보험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 상품이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도입한 시간제 배달 근무 방식인 ‘배민커넥트’를 위해 탄생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배민커넥트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 소유의 이동 수단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가정용 이륜차보험을 K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배달 근무를 하는 동안 시간 단위로 유상운송보험이 자동 적

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보다 편리하고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배달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받아도, 라이더가 기존에 가입한 차량 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은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안전망제도 개선 방향에도 부합한다. 기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보험료가 높고 보험사에서 가입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남는 시간에 배달 근무로 추가소득을 얻으려던 이들이 감수해야 했던 보험 사각지대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상품 승인 전까지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12514@

시몬스 ‘60수 새틴면 100%’ 케노샤 베딩 신제품

시몬스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 베딩 신제품(사진)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케노샤’는 시몬스 침대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의 베딩, 퍼니처, 프래그런스, 베스 컬렉션 등 ‘시몬스 룩’의 침실 공간을 완성해줄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신제품 ‘베네딕트 리아’는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새틴면에 과감한 벨벳 컬러 라인 디테일을 더해 감각적인 침실 분위기를 연출한다. 호텔 베딩에서 접할 수 있는 특유의 고급스러운 60수 새



틴면 100% 소재가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한다. 얇은 솜 패딩이 내장돼 있어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야놀자 레저큐 ‘남쪽빛 감성여행투어’ 3종

야놀자 계열사 레저큐가 부산관광공사와 거제, 통영, 남해 인기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남쪽빛 감성여행 투어패스 3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쪽빛 감성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하나로, 부산시가 기획한 부산·경남권 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레저큐와 부산관광공사는 남쪽빛 감성여행의 일환으로 지난달 선보인 부산투어패스에 이어 거제, 통영, 남해 투어패스를 신규 출시했다. /구서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뉴스

“더는 제 가족 일로 부담 드려선 안돼”

조국 법무장관 결국 사퇴

지지율하락·여론부담·檢압박 등 상황악화 우려에 ‘자진사퇴’ 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취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지지율 하락과 여론 부담, 검찰 수사 압박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지명 후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는 현 정부 들어서 최소범위인 0.9%포인트로 좁혀졌다. 특히 일간 집계로 보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33.0%, 자유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통계도 있었다.

무엇보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선을 넘어 문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가시화한 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문재인 퇴진-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린 데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지난 9일 열린 집회에도 인파들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

서초동에서 ‘조국수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친여권의 맞불 집회가 열렸지만 조 장관으로 불거진 정국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이슈를 관심 밖으로 놓이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날 정 교수는 5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조 장관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것도 부담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었던 조 장관은 직을 사퇴하면서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또 14일 오전 이른바 ‘조국표 검찰 개혁안’까지 직접 발표한 것도 사퇴를 위한 줄기용 명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사퇴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장기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 외에도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구속 심사는 이번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으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부실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동아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한편, 조 장관은 딸·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내용을 조 장관 등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특수부 대거 축소,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법무부, 검찰개혁안 발표

오늘 국무회의에 개정안 상정 45년 사용 ‘특수부’ 명칭 교체

서울 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남고 특수부의 수사범위가 축소된다.

14일 오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고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다.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특수부의 사무 범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행 변화도 이뤄진다. 1회 조사시간이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이 보장된다.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한다. 다만 열람시간은 이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도 마련한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

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도 10월 중 개정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검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검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며, 법조인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기자

“조-윤 檢개혁 희망 했지만... 결과 송구”

(조국-윤석열)

文 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

“언론역할 생각할수 있었던 기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관련) 우리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결코 (검찰개혁은)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피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시민 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보회의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장관직을 내려놨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제는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난 점이다.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줬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10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3%)’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41.4%, 부정평가는 3.8%p 오른 56.1%다. 이러한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

‘스펙태클·인턴십’ 롯데, 채용 진행

12개 계열사 17개 직무 선발
동계 인턴십전형 복수지원 허용

롯데는 14일 ‘2019년 하반기 롯데 SPEC태클전형 채용’ 사전 과제를 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과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2019년 동계 인턴십전형 채용’에 대한 지원서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롯데 고유의 블라인드 채용인 스펙태클 전형은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에서 벗어나 지원자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만을 평가해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하반기 스펙태클 채용에 참여하는 회사는 롯데제과, 롯데정보통신, 롯데백화점, 롯데커머스,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 등 12개 계열사이며, 채용 직무는 17개다.

전형 절차는 ‘과제심사 → L-TAB (조직/직무적합도 진단 중 조직적합도 진단만 진행) 및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스펙태클 채용 지원 방법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고, 지원 회사/직무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과제는 ▲친환경 포장 아이디어를 적용한 과자 패키지 디자인 제안(롯데제과) ▲식품 특화 서비스 제안(롯데커머스) ▲본인이 경험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출(롯데정보통신) ▲럭셔리 브랜드 트렌드를 반영한 컬래버 기획(롯데백화점) 등 지원 회사/직무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기획서 또는 제안서 등이다. 롯데는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과제에 이름,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출신 학교명과 같은 지원자 본인의 스펙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면접 전형에서는 엄격한 직무역량 검증에 위해 면접 당일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습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별로 선택적으로 사전 제출과제에 대한 심화 프레젠테이션을 추가로 면접에 반영할 계획이다. 롯데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함께 창의성, 열정 등 개인 역량을 세밀히 살핀 뒤면



롯데 하반기 인턴스펙태클 포스터

접 합격자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지원 회사별로 하반기 일반전형 합격자와 함께 내년 1월 A grade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거나, 동계 인턴십전형 합격자와 함께 내년 1~2월 인턴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동계 인턴십 전형은 롯데칠성음료(주류BG), 롯데마트, 코리아세븐, 롯데면세점, 롯데건설 등 15개사가 진행하며, 채용 직무는 25개이다. 10월 24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이후 서류전형 → L-TAB (조직/직무적합도 진단)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전형에 합격하면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8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게 되며, 이후 실습평가와 최종 면접을 통해 A grade 신입사원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다.

롯데는 이번 동계 인턴십전형부터 지난해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에서 최대 2개의 회사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류전형 심사 시 복수지원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2개의 지원사항 모두 합격권인 경우 사전에 지원자가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 대해서만 합격하게 된다. 롯데는 복수 지원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채용담당자는 “동계 인턴십 전형의 경우 이번 전형부터 복수 지원을 허용한 만큼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초등돌봄 수요파악’... 범부처 합동 조사

교육부, 내년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부는 2020학년도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5일~25일까지 모바일을 이용해 초등학교 1~5학년과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학기 초등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를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는 11월에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도교육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위한 조사이고, 돌봄신청 조사는 이후 사업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국회의원, 헛방 국감 대신 공부 합시다



매년 국방분야 국정감사를 보고 있으면, 삶은 고구마를 삼켜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는데 국방에 국자는 알고 떠드는 꼴까.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9일 김병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전문학적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구매한 무기들의 단종 또는 폐업 시 수급 문제에 대해 군이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무기체계는 해군의 링스 헬기의 대함 유도탄. 일부 언론들은 이 유도탄의 절반이 사용불가라며 해군이 방산비리의 책임이 있다는 논의로 보도했다. 링스 헬기에 장착되는 Sea Skua 미사일은 1991년 링스헬기와 함께 도입됐다. 최초 도입시기 기준으로 우리 군에 들어온지 28년이나 된 무기체계다.

무기체계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저장수명과 성능보장기간이

있다. Sea Skua 미사일의 저장수명은 10~15년 정도다. 과연 해군이 관리를 못해 사용불가 상태가 됐을까.

염분이 많은 해상에서 밀봉저장이 아닌 외부장착 상태에서 수명주기를 넘긴 무기체계가 절반이상 운용 가능하다는 것은 해군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관리운용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군은 지난 2017년 이미 이를 대체할 무기구매 요청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냈다고 한다.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의 무지가 야전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부분이다. 같은날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수도권 대공방어를 막는 ‘천마’ 미사일 운영 체계가 DOS 체계(286CPU급)라며, 성능개량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무기체계의 꾸준한 성능개량은 분명 필요한 점이지만, 운영체계가 286급이라고 지적한 것은, 분명 문제다. 극한의 환경에서 운용되는 군용장비는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의 표준화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부품을 갈아끼우면 장비의 신뢰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힘들다. 윈도우를 쓰면 모래시계가 한없이 돌아가고, 블루

스크린이 뜰 수도 있다. 즉각대응이란 건 기대하기 힘들겠지.

참고로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우주왕복선도 1986년 인텔이 출시한 80386 칩을 쓴다. 국회의원들은 말을 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누가 알려준다고 뉘름 생으로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이번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아닌 상상의 나래를 편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해볼까 한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이 아닌 7만톤급의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춘 계획으로 항모 전력화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가 7만2000톤급이다. 작전반경이 1만해리(1만8520km)에 달한다. 한반도 자체가 떠 있는 항모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항모가 필요한걸까. 이 항모를 획득하는 비용만 5조4000억원 정도가 든다. 운용비는 별도다. 나랏기둥을 뽑아 이를 쏘시는 격이다.

주목받기 위한 국감이 아닌, 진단하고 제시하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

/caotinn@

사학비리 저질러도 교육부, ‘경고·주의’만

고발·수사 의뢰 건 중 41% 처벌無

교육부에 수백건의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됐지만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사립대 감사 결과 339개 대학에서 회계 부정 4528건이 저질러졌고, 비위 금액은 4177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중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비위 적발 사립대를 검찰

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조치한 건 중에서도 41%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형이나 오테라도 수습역원에 달하는 비위에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났다. 이에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신고된 비위 건에 당사자인 대학과 법인을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유선·서면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 현황’에 올해 접수된 150건의 신고 중 55건을 유선·서면·대학 자체 조사만으로 종결 처리했다. /손현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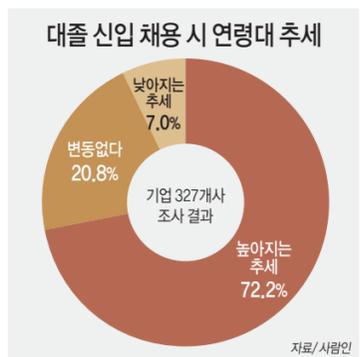
대졸 신입 연령 ↑... 30대 채용경험 72%

사람인, 인사담당자 327명 설문

대졸 신입 지원자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72.2%는 ‘30대 이상 신입사원 채용 경험’이 있었다.

14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27명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 채용 시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72.2%)은 최근 대졸 신입 채용 시 지원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답했다. ‘변동 없다’는 의견은 20.8%, ‘낮아지는 추세’라는 의견은 7%였다.

연령대가 높아지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다양한 스펙 쌓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50.8%)가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취업난이 지속되서’(36.4%), ‘지원자의 눈높이가 높아서’



(35.6%), ‘휴학, 졸업유예가 보편화되어서’(34.3%),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25.4%), ‘고학력자가 늘어나서’(2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기업 중 72.2%는 올해 30대 이상 신입사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순천향대가 피규어와 홍상을 제작한다. /순천향대

순천향대 ‘맞춤형 기념품’ 3D 제작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는 3D 프린터 교육대상자에게 3D기술로 활용해 개인 피규어와 홍상을 제작해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센터는 기업이 원하는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출력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아산시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3D 프린터 기초교육 실시하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덕성여대

예체능 미술실기고사 실시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강수경)는 이달 19일 2020학년도 수시모집 예체능 전형 미술실기고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시모집 예체능전형은 Art & Design대학에서 50명을 선발한다. 실기고사는 수목담채화, 색채소묘,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수험생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선택한 1개 유형에 대한 실기고사를 치르게 된다. 실기고사 반영 비율이 80%로 매우 높다. /한용수 기자 hys@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한국투자증권 '사랑나눔 주말 봉사활동'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영유아 보육시설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한국투자증권 사랑나눔 주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사내 봉사단체인 '참벗나눔 봉사단'이 주축으로 이날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노후벽면 페인트 작업, 미끄럼 방지 계단틀·계단 손잡이 설치 등 영유아 보육시설을 정비했다. /한국투자증권



CJ제일제당, 주한 외국인 리더들에 K-푸드 소개 CJ제일제당이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CJ 블로썸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농부무 참사관, 러시아 대사 내외, 캐나다 대사 내외 등 7개국 1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식문화와 K-푸드의 세계화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CJ제일제당

CJ푸드빌 N서울타워, 유방암캠페인 동참

N서울타워가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코리아가 실시하는 유방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N서울타워는 지난 11일과 12일 N서울타워 전체를 핑크빛 조명으로 밝히며 에스티로더 컴퍼니즈의 유방암 캠페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참여했다. 서울 중심에서 유방암 캠페인의 취지를 확산시키고 유방암 인식개선과 조기 검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핑크빛 조명을 사용했다. 핑크는 유방암 캠페인을 대표하는 색이다. /박인용 기자



오리온, 4년 연속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 오리온그룹은 베트남 현지 농가에 1억3000만원 상당의 농기계, 연구시설, 장학금 등을 기증하는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를 4년 연속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는 중소 규모 농가가 많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감자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리온

P&G '다우니',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생활용품 기업 피앤지(P&G)의 섬유유연제 브랜드 다우니가 2019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섬유유연제'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고 권위의 품질만족도 종합지표다. 다우니는 제품의 성능 (75.28), 신

뢰성 (71.25), 안전성 (72.95) 등의 사용품질 항목 및 감성 품질 항목 총 9개의 조사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섬유유연제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다.

1961년 미국에서 첫 출시된 다우니는 지난 2012년 '초고농축' 포뮬라로 한국에 첫 진출해 6년 만에 국내 전체 섬유유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소상공인 위한 현실적 대책



이상현의 칼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보자. 이번 정부 들어 많은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를 면밀히 통계로 들여다보았다.

집권 초기,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실질적 경제성장을 구현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실질 성장은 어땠는가?

2017년 2분기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8만6401원이었고 2019년 2분기 근로소득은 464만8329원으로 13.8%로 가파른 증가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상승한 임금이 소비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수익 증가로 나타났을까?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2017년 2분기 208만3744원에서 2019년 2분기 193만9611원으로 오히려 6.9% 하락한 걸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통계자료는 소득분위별 근로자가구 이외의 사업소득은 1분위(-54.9%), 2분위(-22.7%), 3분위(-10.4%), 4분위(+2.9%)로 나타났다.

근로자 외 가구 사업소득이 전체로는 -6.9%로 집계됐다.

결국 고소득층인 5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지만, 나머지 1~4분의 계층의 사업소득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3분위 기준 각각 21.5%, 16.1%, 5.1% 하락하는 등 감소폭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비중은 71.0%이고, 2019년 8월 기준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명으로 인건비 부담이 없는 자영업자도 상당하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물론 근로소득자와의 소득 격차는 최저임금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전체 원인으로 치부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유 중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는 창업 시장의 과열로 치솟는 임대료가 대표적 원인이다.

올해 2분기 소규모상가(100평 이하)의 임대료는 전국평균 1㎡당 2만4000원 수준이며, 서울지역은 5만4700원, 그중 도심지역의 약 30평 규모의 상가 임대료는 약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임대료의 상승이 자영업 시

장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이보다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소위 잘나가는 상권 내 빈점포가 속출하며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창업자들이 창업 시 지원이나 대출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큰 수익 부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형 창업자들의 대출잔액은 1인당 대출기준으로는 4799만원에서 5705만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했다.

아울러 내수 시장의 위축이 소비심리 기준 108에서 97로 하락했고,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한 대책과 집행의 일관성 부족도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과 구매 패턴의 변화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급격한 온라인시장으로의 유통구조의 재편과 함께 세대별 소비트렌드의 변화가 양분화,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도 전체 수익감소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다. 그만큼 그들의 절박함을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우리금융,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 지원

음성도서 340권, MP3 120대 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음성도서 340권과 CD겸 MP3플레이어 120대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흰 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하는 흰 색깔의 지팡이를 말한다.

'우리(WOORI), 따뜻한 목소리' 사업은 전문성우가 참여한 고품질 음성도서를 음성파일과 CD로 제작해 전국 맹학교 및 전자도서관에 보급한다. 음성도서 청취용 CD겸 MP3플레이어를 제공해 시각장애 아동의 문화생활과 학습 기회 증진을 지원한다. 특히 우리



우리금융그룹은 음성도서 340권과 CD겸 MP3플레이어 120대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14일 기부했다. 우리은행 사내 아나운서(사진)가 직접 녹음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전달됐다. /우리금융그룹

금융그룹 임직원이 직접 시각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녹음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접자책보다 음성도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아동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문화·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하이투자증권 ◇지점장 신규 보임 △침산지점장 김형석
- ◆MBC플러스 △방송본부 디지털Biz센터장 박형민 △방송본부 디지털기획팀장 윤미진 △방송본부 STUDIO K팀장 황성규 △방송본부 show Biz팀장 서홍교 △방송본부 예능제작팀장 허무란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장 강정우
-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부장직무대리 겸 법조팀장 최석진
-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경숙
- ◆매일일보 △건설사회부장(부국장) 김영배

부음

- ▲강신영씨 별세, 강인석(KT평택Biz영업)·강정욱씨 부친상, 이화원(기아타이어즈 대표이사)씨 장인상 = 14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국립현충원
- ▲전명분씨 별세, 한상인·한승희·한영희·한선미·한은미·한기현(MBC 이사)씨 모친상, 안성호·김민태·손태섭씨 장모상 = 13일 오전 7시, 김천 태천장례식장 1층 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 ▲김복삼씨 별세, 하영호(SK증권 신사업추진부문장)·하봉수(전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

- 장)·하연심(청주여상 교사)씨 모친상 = 14일,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 ▲서무임씨 별세, 조해훈(시인·전 국제신문 문화전문기자)·병훈(자영업)·정희 씨 모친상 = 14일 오전 2시 33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401호, 발인 16일 오전 10시
- ▲설순례씨 별세, 장명진(다스 생산기술센터 이사)씨 장모상 = 13일 오후 11시 56분, 울산영락원 202호, 발인 16일 오전 8시
- ▲심재일씨 별세, 구선모(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6시 5분, 충북 진천 제일장례식장 1층 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쇼핑에 호러를 더하라”... 할러윈데이 특수 ‘들썩’

이달 31일 할러윈데이

롯데백 11개 매장에서 이벤트 진행
평촌·수원·본점 등서 ‘퍼레이드’
롯데마트 17일~30일 기획전 실시
다이소 인테리어 소품 등 230종

미국을 넘어 전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할러윈데이(10월 31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체가 분주하다. 할러윈데이는 매년 10월 31일, 유령,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다. 최근 몇년사이 젊은층 사이에서는 할러윈데이를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가을철 새로운 유통 대목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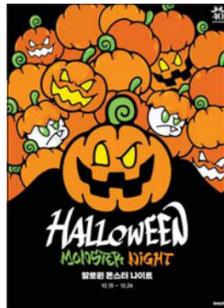
롯데백화점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본점, 부산본점, 평촌점, 수원점, 전주점, 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등 총 11개 매장에서 다양한 할러윈 관련 마케팅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매장 내부와 외부를 모두 할러윈 테마로 꾸며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할러윈 이벤트로는 19, 20, 26, 27일 본점, 평촌점, 수원점, 전주점, 부산본점, 기흥점, 동부산점에서 펼쳐지는 할러윈 퍼레이드가 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점포를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사탕과 젤리 등이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점포별로 할러윈 관



예술 작품으로 색다르게 태어난 ‘할로윈’ (왼쪽부터), 롯데백화점 할로윈 테마 캐릭터, 다이소의 할로윈 기획전과 할로윈 슈가스킬모자, 백다방 할로윈스무디 포스터. /각사



련 상품들도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점 영플라자에서는 할러윈 상품들을 판매하며, 7층 사탕데기에서는 할러윈 플리마켓을 진행한다. 수원점에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층 행사장에서 할러윈 관련 상품들을 선보인다.

하나의 축제·파티 문화로 자리잡은 할러윈데이는 제과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소품과 코스튬이 인기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할러윈시즌(10월19일~11월1일) 제과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0% 성장했다. 할러윈시즌 제과류 매출은 화이트데이 시즌(3월1~14일) 매출의 약 80% 수준으로 훌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에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할러윈 데이 기획전’을 진행해 다

양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할러윈 아동/유아 호박망토 세트’를 1만5000원에, ‘카카오프렌즈 해피할러윈 호박가방’을 7900원에 판매한다.

아성다이소는 할러윈 기획전을 마련해 할러윈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과 파티용품, 할러윈 코스튬 등 총 230여종의 상품을 준비했다.

클래식한 컨셉의 호박, 고양이를 비롯해 슈가스킬 디자인을 새로 선보여 더욱 다채로운 할러윈을 즐길 수 있다. 전체 상품의 80% 이상을 2000원 이하의 상품군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쿠팡 역시 관련상품을 찾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2019 할러윈 테마관’을 오픈했다. 이번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테마관은 패션, 뷰티, 완구, 식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한다. ▲할러윈 코스튬 ▲캔디&초콜릿 ▲할러윈 파티&포장선물 세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식음료 업체도 할러윈데이 특수를 노려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

지난해 할러윈 시즌을 국내에 첫 도입해 큰 호응을 이끌어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5일부터 할러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음료와 푸드 등을 전국 매장에 새롭게 출시한다.

올해는 할러윈 컨셉 매장 운영을 확대하고, 음료 3종 및 푸드 8종과 더불어 MD 상품도 할러윈 시즌 한정으로 새롭게 선보여 지난해보다 할러윈 시즌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했다.

스타벅스는 전국 8개 매장에 ‘Trick or Treat’을 주제로 한 할러윈 컨셉 매장을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 간 운영한다. 지난해 운영된 4개 매장(스타필드코엑스R, 강남R, 더종로R, 이태원역)에 올해 송도트리플R점, 서면중앙대로R점, 송파방이DT점, 홍대입구역사거리R 점이 추가됐다.

스타벅스는 할러윈 컨셉 8개 매장 운영 외에도 할러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음료 3종도 전국 매장에 선보인다.

더본코리아의 커피전문점 백다방은 할러윈데이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싹하게 서늘한 시즌테마 음료 ‘할러윈 스무디’ 판매에 들어갔다. 드라큘라나 좀비, 유령과 같은 코스튬 분장을 연상시키는 짙은 회색빛갈의 음료 베이스는 상큼한 오렌지맛을 품고 있으며, 섬뜩한 느낌으로 드리즐 되어 흘러내리는 소스는 달콤한 딸기 맛으로 반전매력을 선사한다.

백다방 ‘할러윈스무디’는 11월 1일까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백다방 직·가맹점에서 시즌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필라이트 누적판매 7억캔 ‘메가브랜드’ 성장

하이트진로, 캔 연결맨 지구 2.2바퀴
 1초당 9캔씩 판매, 성인 1인당 16.7캔



국내 최초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사진)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브랜드가 지난 3일 기준(출시 892일) 누적판매 7억캔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초에 9캔씩 판매된 것으로, 우리나라 성인 1명당 16.7캔(20세이상 성인수 4203만명)을 마신 수치다. 캔을 연결하면 지구 둘레를 약 2.2바퀴 돌 수 있는 수량이다.

변함없는 판매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필라이트는 지난 2월 5억캔 판매 돌파 기록에 이어 7개월만에 2억캔을 더 판매했다. 5억캔 판매 달성시점보다 1억캔 판매 달성 기간이 약 13일 이상 단축됐다.

하이트진로는 100% 아로마 호프를 사용해 고유의 풍미와 맛이 뛰어난 국내 최초 발포주 필라이트 출시를 시작으로, Fresh 저온숙성공법과 100% 국산보리로 완성된 시원상쾌함이 특징인 필라이트 후레시, 국내 최초로 밀을 원료로 한 필라이트 바이젠을 새롭게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함과 동시에 국내 발포주 시장 확대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노력과 뛰어난 가성비, 판매로 검증된 품질력을 바탕으로, 필라이트

트는 발포주 No.1 브랜드로서 인정받으며 단기간 내 메가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이트진로는 앞으로도 필라이트 브랜드의 다양한 시도와 소비자접점에서 의 소통을 통해 브랜드 선호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발포주 시장의 개척자이자 1위 브랜드로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전략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하반기에도 소비자접점에서 필라이트 코끼리 캐릭터 ‘필리’를 활용해 다양한 활동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국내 최초 발포주 브랜드로서, 필라이트 브랜드만의 색다르고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주목하며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u7854@



이상호 11번가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만 자비히 아이허브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번가

11번가-美 아이허브, 마케팅 협력 맞손

11번가 주식회사가 미국 최대 해외 직구 플랫폼 ‘아이허브(iHerb)’와 국내 마케팅 협력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

11번가는 지난 주 이상호 11번가 사장과 이만 자비히 아이허브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휴 협약식을 갖고, 양사 간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협력 및 PB 상품 개발, 브랜드 라이선스 상품, 마케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허브는 미국 최대 건강보조제품 및 생활용품 유통업체로 1200여개 브랜드의 3만여종 이상의 제품을 한국을 비롯 미국, 러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프랑스 등 전세계 150여개 국가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11번가는 아이허브와 공동으로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아이허브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

를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 등 두 회사만의 상품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SK그룹 내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협력으로 아이허브의 국내 상품 유통 확대에도 노력하게 된다.

아이허브의 제품 품질 및 신선도 관리 기준은 미국 내 업계 최고 수준이며, 모든 한국행 주문 제품은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관리가 가능한 캘리포니아의 최신 물류센터를 통해 출고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물류센터는 주 6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약 90% 이상의 제품이 주문 후 72시간 이내에 한국에 도착, 다른 직구 대비 빠른 배송과 좋은 제품 품질로 국내 구매고객에게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만 자비히 아이허브 사장은 “한국 최대 규모의 오픈마켓인 11번가와 함께 아이허브의 핵심 시장인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티몬 10분에 1.4억 매출 ‘타임커머스’ 통했다

티몬은 지난 10월11일 ‘10분어택’을 통해 ‘아일랜드캐슬’ 객실1박과 워터파크 2매를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는데 총 1900여장의 티켓이 팔리며 단 10분만에 1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티몬의 ‘10분어택’은 매일 오전 10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가격

의 상품을 단 10분간만 판매하고 사라지는 업계 최초의 ‘분’ 단위타임커머스 매장이다. 짧은 시간 동안만 판매하는 만큼, 그동안 단가가 낮은 상품들의 판매가 많았으며 최단시간 최다수량 판매의 효과를 입증한 바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일례로 지난 7월5일 ‘10분어택’에서는 제철을 맞은 자두를 1개 100



원에 판매를 했고, 10분간 총 10만500개가 팔려 이커머스 사상 최단시간 최다판매로 한국기록원의 공식인증을 받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씨앤팜, '폴리탁셀' 유럽 특허승인

〈무고통항암제〉

확장성 높은 약물전달 플랫폼 구조·제조방법에 대한 물질특허

현대바이오 대주주 '씨앤팜'의 체장암 치료신약 원천기술 특허가 미국에 이어 유럽(EU)에서도 승인됐다.

코스닥기업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 '씨앤팜'은 무고통항암제 '폴리탁셀'(Polytaxel)을 포함하는 폴리포스파제 나노 약물전달체의 구조와 제조방법에 대한 물질특허를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승인받은지 6개월만에 유럽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씨앤팜이 특허를 확보한 폴리포스파

제계 약물전달체는 암조직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거의 없는 최첨단 나노바이오 약물전달시스템이다. 다양한 약물을 탑재할 수 있어 체장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질환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으로 손꼽힌다.

씨앤팜과 공동으로 무고통항암신약 폴리탁셀의 체장암 글로벌임상을 추진 중인 현대바이오는 올해 6월 개최된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2019'에서 세계 최초로 암 완치를 위한 무고통항암치료 '노엘테라피'를 공식 발표했고, 이를 통한 완치 수준의 체장암 동물실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학회서 인증

대한뇌졸중학회 인증제도 기준 충족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가 대한뇌졸중학회의 '뇌졸중센터(Primary Stroke Center)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2년 8월까지 3년이다.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고 있는 '뇌졸중센터 인증제도'는 뇌졸중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 세부 평가 항목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증은 ▲진료 지침 ▲뇌졸중 응급환자 진료 체계 ▲뇌졸중 집중치료실 ▲환자 평가 및 관리 ▲재활 ▲뇌졸중팀 ▲질 향상 활동 및 지표 관리 ▲교육 ▲의료 장비 등을 평가해 이뤄졌으며, 이대목동병원은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박기덕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존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박기덕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

있다"며 "앞으로도 뇌졸중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2005년부터 서울지역에서 2번째로 뇌졸중 집중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혈전용해제 시술 100예 달성에 이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뇌졸중 진료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아 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이세경 기자

“인플루엔자,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독감백신 접종 날’ 토크콘서트

“인플루엔자는 독감으로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감기와는 다른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2회 독감백신 접종 날'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독감백신 접종 날’은 국민보건 향상 차원에서 백신접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독감백신 접종 날을 기념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평소 독감에 대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중웅 대한내과개원의 사회장을 초빙, '의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라는 주제 아래 ▲오프닝 및 관객과의 인사 ▲독감 백신 접종 날이란? ▲관객 현장질문 및 패널 Q&A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웅 회장은 “10월 15일부터 고령자, 어린이(1회), 임신부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이 시행된다”며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이 접종 지정 기관인지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매년 접종을 맞아야 하나”는 질문에는 “백신의 면역력은 다음 해부터 감소되며 해마다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독감백신 접종 날을 처음 알게 됐다”며 “백신 접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세경 기자



내게 맞는 호텔 찾기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금수장 패키지 복고 감성으로 탄생 호텔 일부 객실 1955년 모습 재현 개화기 스타일 의복·장갑 등 준비 '청굴' 등 다양한 계절메뉴 마련

‘엠베서더 호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다. 앞, 뒤 명칭만 조금 다른 그룹사 호텔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 있으니 말이다.

이 엠베서더 호텔 그룹의 시작은 바로 ‘금수장’이다. 국내 첫 민영 호텔이기도 하다. 1955년 개업한 금수장은 1965년 ‘엠베서더’로 바뀌었다. 이후 엠베서더 호텔 그룹은 1987년 프랑스 계열 호텔 체인 그룹인 아코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의 풀만, 노보텔, 이비스, 머큐어 등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했다.

한국 호텔 시장의 성장에 기여한 엠베서더. 그 전신인 ‘금수장’이 서울 금천구 독산에서 부활했다. 엠베서더 호텔에서 3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이하 노보텔 독산)이 그 주인공이다.

◆레트로 무드로 돌아온 ‘1955 금수장’

노보텔 독산은 1997년 9월 개관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도심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꽤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다. 광명동굴, 가산디지털단지 패션 아울렛 콤플렉스 등 특정 관광지나 쇼핑지가 가깝고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비즈니스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다.

스물 두 돌을 맞이한 호텔이지만 그 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숙박객을 유혹할 패키지 상품이나 행사를 끊임 없이 선보이며 ‘호캉스 전성시대’에 동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의 ‘금수장’ 패키지.

/노보텔 독산

참 중이다.

금수장 패키지는 최근 트렌드인 ‘복고’ 감성을 담아 탄생했다. 호텔의 일부 객실을 1955년, 그때 그 시절 금수장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다. 객실 한쪽 코너에 전화기와 램프, 액자 등 고풍스러운 소품들을 배치했고, 개화기 스타일의 의복 4벌과 장갑, 부채, 모자 등을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의 ‘금수장’ 패키지.

함께 준비했다.

패키지의 상세 구성을 보면 ▲프리미어 스위트 객실 ▲가든테라스 조식 뷔페 ▲프리미어 라운지 이용 ▲프릴 츄크피 1박스 ▲인발란스 휘트니스 클럽 내 헬스장·실내수영장·사우나 혜택 제공이 포함돼 있다.

가격은 2인 기준으로 1박 투숙 시 15만9000원(세금 별도)이다. 최대 3인까지 이용이 가능해 친구들이 함께 즐기

기에 좋다.

노보텔 독산 관계자는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복고 열풍을 겨냥, ‘뉴트로(New+Retro)’ 무드의 객실을 준비했다. 복고 감성에 흠뻑 취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수장도 식후경

노보텔 독산을 채운 것은 ‘복고’뿐만이 아니다. 허겁에 가을 낭만을 엮어줄 계절 메뉴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그 첫 번째는 ‘청굴’이다. 청굴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약 1달간만 수확이 가능하다. 레몬에 비해 비타민C가 10배 가량 높아 면역력 강화나 피부미용,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노보텔 독산은 건강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힐링’ 패키지를 오는 31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에는 라운지 바 휘트니스의 가을 체질 음료 프로모션 ‘청굴을 담다’ 메뉴 2잔이 포함돼 있다.

요일별 프로모션은 새로운 선택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노보텔 독산의 뷔페 레스토랑 ‘가든테라스’에서 진행되는, 가을을 맞아 메뉴가 바뀌었다. 주요 메뉴는 토시살, 스노우 크랩, 동파육, 전가복, 감바스 알 아히요, 간소새우, 감자 매생이죽, 밤수프, 동래파전, 야마이모 샐러드 등으로, 40여 가지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노보텔 독산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프로모션 메뉴 중에서 고객 반응이 좋았던 인기 메뉴로만 구성했다”고 전했다.

먼저 월, 화요일에는 점심, 저녁 모두 정상가에서 20% 할인된다. 수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모든 이용 고객은 어린이 요금을 9900원만 내면 된다. 목, 금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무제한 생맥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의 뷔페 레스토랑 ‘가든테라스’의 메뉴.

G9, ‘스마일클럽’ 회원 최대 30% 추가할인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트렌드라이프 쇼핑사이트 G9(지구)가 멤버십서비스인 ‘스마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일클럽’은 지난 2017년 4월 이

베이코리아가 국내 업계 최초로 런칭한 유료 멤버십제로, 가입 즉시 G9를 비롯해 G마켓과 옥션의 최고 등급이 부여된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웰컴 기프트로 스마일캐시 3만5000원을 제

공하고, 한 달 무료 이용 신청 즉시 2000원을 지급해 총 3만7000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G9는 스마일클럽 회원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 관을 별도 운영하고, 매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월의 혜택은 최대 30% 할인 쿠폰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車, 태풍 '미탁' 피해복구 성금 10억 기탁

기본 생필품 지원·수해 차량 서비스

현대자동차그룹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전달 등 다양한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또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생수, 라면 등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옷가지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가능한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2대를 투입했다.

7톤 트럭을 개조한 '도시형 세탁구호차량'은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및 발전기 1대로 구성돼 있으며 하루 평균 1000kg 규모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함께 현대·기아차는 올해 연말까지 태풍 '미탁'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을 위해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기아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줌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 또한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2017년 포항지진, 2016년 태풍 '차바'를 비롯해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 2007년 태풍 '나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2003년 태풍 '매미', 2002년 태풍 '루사' 등 국내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미래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중국집 사장님은 치킨을 시켜먹고, 치킨집 사장님은 피자를 시켜먹고, 피자집 사장님은 족발을 시켜먹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웃픈(웃기고 슬픈) 상부상조'의 모습이다. 퇴직 연령이 갈수록 빨라지고, 국민연금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장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3조91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6969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300억원이 줄어든 것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문제는 매년 수 천억원, 기금은 수 조원을 배정해 지원하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다.

여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8만6209곳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15만 4728곳(26.4%)이었고, 숙박·음식업이 14만1164곳(2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총 56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창업을 돕기 위해 만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이들 과밀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세로 교육시켜 내보내는 졸업생 10명 중 6명이 또다시 '치킨 게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지원정책 실패의 한 사례일 뿐이다. 소상공인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산다사형 창업'은 자영업 비중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bada@metroseoul.co.kr

태광그룹 일주재단, 국내학사 장학생 선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14일부터 31일까지 국내 4년제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국내학사 장학생사업'을 진행한다. 일주재단은 특정 학교나 전공에 대한 차별 없이 여러 분야의 다각적 평가를 통해 학사 장학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했던 태광그룹 창업주이자 재단 설립자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철학에 따라 1991년 시작했으며, 총

914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국내학사 장학생은 1학년 1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의 성적(4.5점 기준)을 받은 학생들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선발 후 연 15회(총 30시간) 이상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배려계층 장학금 필요성 측면을 강화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최대 6학기까지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일주재단 국내학사모집 포스터. /태광그룹

장학생은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48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7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4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되어 돌아오지만 어찌 편치 않다.
- 소** 37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49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 61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73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다. 85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메모하라.
- 호랑이** 38년생 자선이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다. 50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는 많으나 실리는 없다. 62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조심. 74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라. 8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 토끼** 39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51년생 가족 간에 공과 사를 다룰 일이 발생. 63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75년생 돼지띠와의 계약이 잘 성사. 87년생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 말** 40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라. 52년생 남이 차린 밥상이 불편. 64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있다. 76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88년생 이사해도 재활용으로 낭비를 줄여야 한다.
- 뱀** 41년생 자식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53년생 혈관질환이 의심되니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65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지 마라. 77년생 서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89년생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잡아라.

- 말** 42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5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소꿉동 한 방법. 66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78년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90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 양** 4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55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행동할 때. 67년생 후배의 조언으로 위기를 모면. 79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91년생 청소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
- 원숭이** 44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 5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으니 서두르지 마라. 68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80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 92년생 때 이른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낭패를 본다.
- 닭** 4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57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낭비. 69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하게. 81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93년생 황재수가 있으니 재물운도 있다.
- 개** 46년생 농진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8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나에게 돌아온다. 70년생 무지개를 쫓아가나 잡지 않는다. 82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94년생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 돼지** 47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다. 59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71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83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받는다. 95년생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김상회의四季 같은 듯 다른 운명의 길

쌍둥이 아들을 둔 삼십대 초반의 젊은 애기 엄마가 방문했다. 아들이 다섯 살인데 쌍둥이 아들의 미래가 궁금했다. 보통 쌍둥이라 하면 같은 연월일시를 타고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성격이며 사주가 비슷하기가 일반적이다.

아들들의 경우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낳은 같은데 태어난 시가 차이가 있어 연월일까지는 같으나 시(時)는 달랐다. 을미년 생으로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보니 큰 아이랑 작은 아이는 괴강일주로서 남의 밑에 있기보다는 리더격으로 살아가는 운이라 말해주었다.

그러나 큰 아이는 연애박사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자에게 인기가 많아 평생 여자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그 점을 조심해야 한다. 춘정산하격(春情山河格)이라 하여 여자 없이는 못사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래 동생은 여자문제는 형에 비한다면 깔끔하나 대인관계에 있어 선이 강하다. 운이 좋을 때는 별무탈하여 탈이 적으나 대운이 비운으로 흐를 때는 아군이 변하여 적군이 되는 형상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굳이 다룰 일이 있어도 양보하는 태도를 취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도 형보다 동생이 더 기질이 강하고 호전적으로 보이는 것은 형은 일지의 진(辰)이 시지의 유(酉)를 만나 진유합을 이루니 풍류를 즐기는 격이 된다.

동생은 일지의 진(辰)이 시지의 술(戌)을 만나 충을 하게 된다. 필자의 설명을 들은 애기 엄마는 사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큰 애는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고 동생은 후딱 하면 싸움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이리 다른가 싶어 아이들의 사주를 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1 | | | 5 | | | |
| | | | 4 | 2 | 3 | | | |
| 3 | | | | | | | | 2 |
| | 5 | | 3 | | 2 | | 1 | |
| | 3 | | | 8 | | | | 4 |
| | 6 | | 7 | | 5 | | 8 | |
| 4 | | | | | | | | 3 |
| | | | 5 | 6 | 7 | | | |
| | | 2 | | | | 8 | | |

| | | | | | | | | |
|---|---|---|---|---|---|---|---|---|
| 5 | 8 | | | 2 | | | 9 | 3 |
| | | | | | | | | |
| | 9 | 2 | | | | | 7 | 8 |
| | | 3 | 4 | | 2 | 1 | | |
| | | | 3 | | | 9 | | |
| 1 | | | | 8 | | | | 9 |
| | 3 | | | | | | 7 | |
| | | 4 | | | | | 2 | |
| 2 | | | 5 | | 3 | | | 1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9 | 6 | 8 | 7 | 5 | 1 | 2 | 3 | 4 |
| 1 | 2 | 7 | 4 | 9 | 5 | 8 | 6 | 3 |
| 5 | 1 | 8 | 6 | 2 | 9 | 1 | 7 | 4 |
| 6 | 8 | 5 | 1 | 2 | 7 | 9 | 3 | 8 |
| 5 | 7 | 2 | 9 | 8 | 6 | 1 | 4 | 3 |
| 2 | 1 | 9 | 3 | 7 | 4 | 5 | 8 | 6 |
| 3 | 2 | 6 | 1 | 5 | 9 | 8 | 7 | 4 |
| 8 | 9 | 1 | 4 | 3 | 7 | 5 | 6 | 2 |
| 7 | 5 | 4 | 6 | 3 | 8 | 1 | 2 | 9 |

문제 제공 =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 이장규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00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04호 |

생활 속 초보 위한 ‘유코치’... “방송국 부럽지 않아요”

〈유튜브+코치〉

‘유튜버 코치’ 4인과의 대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로 생활 지식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유튜브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17회 크리에이터와의 대화 ‘생활 속 전문 코치진, 유튜브 코치’ 편을 진행했다. 유코치 4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남의 운전교실

“잘생겨서 미남이 아니라 운전엔 미친 남자라서 미남입니다. 초보운전자를 위한 운전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상철 씨는 운전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초보자가 시내 운전이나 주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보고 영상 제작을 결심했다. 초보운전자를 위한 영상에서 시작해 현재는 안전 운전 방법, 자동차 용품 리뷰 등도 진행하고 실제로 구독자를 만나서 무료 교육도 하고 있다.

현 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운전 교육을 할 때는 운전자가 긴장을 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중에 온라인에서 영상을 통해 보면 본인이 실전에서 당황했던 부분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고 유튜브의 장점을 설명했다.

현 씨는 현재 운전 지식을 전수하고 있지만 자신 또한 유튜브 운영을 위한

“**현상철 ‘미남의 운전교실’**
현장에서 긴장하는 초보
영상교육으로 실전 극복



동영상 편집 기술 등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씩코치의 야구썸

“야구가 국민스포츠로 불리며 인기가 있는 데도 생활스포츠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걸 보고 안타까웠다. 야구를 쉽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야구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윤 씨는 야구 선수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야구의 기본자세, 타법을 비롯한 야구 감성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다. 기본기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한다.

윤 씨는 “실제로 한 청소년 친구가 내 덕분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랑 내 영상을 보고 슬



윤석 ‘씩코치의 야구썸’
야구 기본·중급·고급 담아
실력 늘었다는 후기 ‘보람’

럼프를 극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뿌듯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씨는 “씩코치가 간다”라는 코너를 통해 야구 동아리를 찾아가서 직접 소통하는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청소를 하거나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정리를 통해 생각과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정희숙 씨는 정리의 의미나 가치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7개월째라는 그는 “케이클부터 정규방송까지 60여 편의 방송에 출연했는데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며 “사

정희숙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
단순 청소 아닌 공간활용법
정리의 의미·가치 알리고파



실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정 씨는 이불, 의류 등 생활용품 정리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다룬다. 그는 “딸을 시집보냈는데 집이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 잠이 안 왔다는 한 어머니가 딸과 함께 채널을 구독하면서 정리가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이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제이제이살롱드핏

“예전에는 트레이너로 수강생 한명 한명에게 시간을 들였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가르치면서 많은 수 십만명이 직접 실행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걸 보니



박지은 ‘제이제이살롱드핏’
웨이트 입문자 심정 잘알아
공감 바탕으로 영상 만들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박지은 씨는 3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관련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가 말하는 성공 비법은 ‘공감’이다. 박 씨는 “내가 체육 관련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초보자가 어떤 게 궁금한지 잘 알게 됐고, 그걸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씨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나 역시도 어린 시절 뚱뚱했었다”며 “일단 시작하면 건강과 함께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사진=유튜브



지난 12일 경주엑스포 문화센터 1층에서 열린 ‘실�크로드 문화축전’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문화엑스포

막오른 ‘경주엑스포’... 가을 나들이객 북적

내달 24일까지 진행... 콘텐츠 다채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스포(이하 경주엑스포)’가 가을 나들이객의 발걸음을 경주로 이끌고 있다.

경주엑스포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지난 11일 개막해, 내달 24일까지 신라 역사문화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11일은 평일에도 불구하고 경주엑스포의 4대 핵심 콘텐츠를 체험하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2일은 맨발학교 회원 500여 명이 전국 최초 맨발 둘레길인 ‘비움 명살길’에 방문했다. 또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구 범물중학교, 경주 계림중학교 등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경주엑스포를 방문해 신라역사와 미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타워 최상층 선덕홀의 ‘신라천년, 미래천년’ 전시관에서는 컨버전스 타임트립이 구현하는 서라벌의 모습이 관람객들에게 공개됐다. 옥외 공간인

‘오아시스 정원’에는 아파트 30층 수준(82m)의 스카이워크를 경험하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천마의 궁전에서 열리는 ‘찬란한 빛의 신라’ 전시관의 반응형 미디어아트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진행되는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은 매 시간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이 공연은 3D홀로그램과 로봇팔이 결합된 세계 최초 퍼포먼스다.

경주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왕립무용단’과 55년 역사의 ‘베트남 호찌민 시립 봉선 민속공연단’ 등 해외 공연팀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 엑스포 문화센터 1층에서 열린 ‘실�크로드 문화축전’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터키, 몽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 6개국의 전통의상과 음식 등을 소개하며 실�크로드를 형성한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펼쳐보였다. /김민서 기자

여행비수기 11월, 호텔은 ‘즐거운 비명’

객실 예약 급증... 준성수기 수준 ‘가성비’ 높은 패키지 예약 견인

공휴일이 없어 여행 비수기로 여겨지던 11월이 도심에 위치한 호텔에게는 성수기 부럽지 않은 ‘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짧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도심속 휴식’이 주목 받으면서 호텔들도 가성비 좋은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4일 서울신라호텔에 따르면 11월 휴식 목적의 객실 예약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휴식 목적의 객실 예약은 2년 전 대비 10%, 3년 전 대비 30%까지 늘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11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신라호텔의 객실 예약율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호텔에서 바캉스 등 휴일을 보내는 ‘호캉스’ 문화가 몇 년 전부터 주목 받으면서 하나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은

점도 예약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시기나 계절에 상관없이 호텔을 찾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호텔들의 최근 3년간 11월 객실 예약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높은 객실 예약율을 유지하는 호텔들도 11월 예약률이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다.

켄싱턴호텔 여의도의 경우, 최근 2017~2018년 11월 객실 예약율 90%대를 유지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하 반얀트리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등도 비슷한 추세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11월은 전통적인 휴가 비수기로 여겨졌으나, ‘호캉스’가 일상 여가 문화로 정착하고, 11월이 가성비 좋은 시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객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호텔들은 ‘가성비’ 높은 패키지 상품으로 고객의 발길을 당기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은 11월 메인 상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객실, 로비 라운지에서의 푸짐한 디너, 와인을 포함한 ‘하트 워밍’ 패키지를 내놨다.

반얀트리 서울이 11월 1일부터 선보이는 ‘센스 오브 레주버네이션’도 가성비와 힐링에 중점을 뒀다. ▲릴렉세이션 풀이 구비된 객실 1박, ▲반얀트리 스파 트리트먼트 60분, ▲그라뎀 다이닝 라운지 조식(2인),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무료 입장으로 구성됐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여성들을 위한 ‘어텀 데이즈’ 패키지와 ‘걸스 나이트 아웃’ 패키지, ‘키캉스’ 패키지 등으로 가을·겨울을 겨냥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편의점서도 옷 산다... 세븐일레븐 ‘경량패딩조끼’ 첫 선

패딩조끼가 편의점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경량패딩조끼’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경량패딩조끼는 여성 속옷 전문기업 남영비비안과 협업해 출시한 상품으로, 높은 품질과 가성비를 자랑한다.

100% 오리털 충전제(오리깃털50%, 오리솜털50%)를 사용해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나다. 남녀공용 상품으로, 색상은 블랙과 네이비 2종이며, 사이즈는 95부터 105까지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16일부터 총 1만 개를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세종대왕과 소용흥씨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창작 춤 공연

세계 주요

소용^{昭容}의 남자

(소용^{昭容}: 내명부^{內命婦} 정삼품의 품계)

(사)선아예술단
www.sunadancecompany.com

- ▶주최 (사)선아예술단
- ▶주관 (주)선아기획
- ▶후원 (주)BK메디텍, (주)시도여행사
- ▶문의 010·5807·8005

(사)선아예술단
2019 정기공연

2019. 10. 24 (木) 오후 8시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전남 기간제 교사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순회 교사 많고 육아휴직 영향

전남과 광주 교단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전남은 교사 2만1천564명 중 2840명(15.2%), 광주는 1만6292명 중 2천104명(14.8%)이 기간제였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12.3%)을 웃돌아 전남 1위, 광주는 2위였다.

전남 9.1%, 광주 10.0%였던 2015년과 비교해도 각각 6.1%p, 4.9%p 늘어나 증가율도 세종(7.6%p)에 이어 가장 높

았다.전국 평균 증가율은 2.8%p였다.

광주는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도 14.3%로 전국에서 두 번째였으며 전남은 9.0%로 전국 평균(11.4%)에 약간 못 미쳤다.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광주 53.6%, 전남 31.6%로 전국 평균(49.9%)과 대비됐다.

전남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겸임 순회 교사가 많고 육아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이라고 전남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승인하지 않은 탓에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



광주 동구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사고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 동구

지리·무등산 공원 내 안전취약 구간 77곳

조치 필요한 4·5등급 전국 145곳

광주·전남권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 내 탐방로 77곳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무등산 국립공원 2곳 내 탐방로 77곳이 안전 취약구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58개 탐방로에서 낙석·침수·추락 등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이 중 정비계획 수립이나 긴급 정비, 최악의 경우 탐방객 우회 유도 등 조치가 필요한 4·5등급 취약구간은 총 5곳이었다. 전국 국립공원 중 네 번째로 많다.

총 탐방로 235km구간 중 18.34km가 취약구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산 공원의 경우 탐방로 19곳(총

2.07km)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 중의 위험 징후가 관찰돼 피해 우려가 비교적 높은 4등급 판정을 받은 탐방로는 4곳이었다.

탐방로 안전성 평가 대상 중 21.05%에 달하며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전국적으로는 13개 공원에서 취약구간 614곳이 확인됐다.이 가운데 1등급 77곳, 2등급 210곳, 3등급 182곳, 4등급 118개, 5등급 27곳으로 나타났다.

탐방로 안전성 평가가 추진 중인 8개 국립공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약구간 탐방로 연장 길이가 가장 긴 곳은 북한산국립공원(32.05km)였다.

취약구간 탐방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태백산국립공원으로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은 안전성 4·5등급 판정 탐방로가 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악산 48곳, 주왕산 8곳 순이었다.

/광주=차정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9 | 해질 / 17:56

10월 15일 (화)
음력 : 9월 17일

수도권 날씨 **10~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7/18, 동두천 7/19, 백령도 9/16, 파주 6/18, 가평 7/17, 서울 10/19, 양평 8/19, 인천 10/19, 수원 10/18, 용인 10/18, 평택 8/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10년간 방치 학교부지, 진주 흥물로

학교, 전자도서관 등 소문만 무성 학생 수 예측 잘못해 용지 구입

진주 신도심 지구내 개발 당시 학교를 짓기 위해 마련된 부지들이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주민들은 이 부지들을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진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진주 지역내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학교 부지는 총 6곳. 이 중 개발이 진행중인 혁신도시와 신진주역 각각 1곳을 뺀 4곳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먼저 관문, 평거지구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택지개발사업용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관문 평거동 지구 개발 당시, 진주교육지원청은 당초 평거동 3·4지구 내에 4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좋은 자리에 중학교 부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 학교 신축은 하지 못한채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봉원중학교도 안 들어선다고 하고, 전자도서관인가 그런 것도 들어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실망감이 크다"면서 "부지에 잡초



진주시의 한 학교부지

가 많이 자라면서 벌레도 많고 비오거나 개구리도 울고 쥐도 나오고 이젠 흥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곳에 중학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학생들은, 결국 집과 먼 학교를 다니고 있다. 김나훈군(명신고 1학년)은 "근처에 사는데 동명중학교까지 걸어가기가 20분 정도 걸린다"면서 "이쪽에 학교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발 당시 학교가 들어선다는 말에 부지 인근에 집을 구했던 사람들의 실망감도 크다.

초전동 학교부지 인근 한 주민은 "택지 살 때는 중학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가기도 좋겠다 싶어 샀다"면서 "중학교 부지인데 안 들어서는 거는 건설회사가 우리에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의 개발상향

에 따라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하고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용지를 구입하였다는 것.

이에 대해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초등학교가 많다고 해서 중학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주시 전체 중학생 수가 정원이 넘어야지만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청이랑 협의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더 큰 문제다.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시청, 교육지원청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아울러 활용 가치가 높은 넓은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남=이경화 기자 7470002@metroseoul.co.kr

진주시 도시재생 선정... 원도심 상호작용 관건

성북지구, 스마트 인프라 구축 목표 활용안, 문화재위 결론발표 후 운곽

진주성과 청소년수련관 주변 성북·중앙동 일원에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21억 원이 투입된다.

성북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난 8일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성북지구를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성북지구에서 청년이 머무르고 문화를 나누고 상인이 희망을 품고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뉴딜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으로 핵심 콘텐츠 4가지를 내세웠다.

먼저 머무름 비움사업이다. 청년허브하우스를 신축해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등 청년이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진주시 성북지구 국토부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기자회견 모습

문화 나눔 비움사업이 두번째다. 창의문화 센터를 리모델링해 해당 센터를 기존 민속공예 공간 및 빛내림 나눔 거리와 연계해 문화 특화 공간 및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번째는 희망 나눔 비움사업이다. 상가 콘텐츠를 발굴하고 희망상가를 조성하며 마을지도 및 관광 앱을 개발해 상권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정보 나눔 비움사업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 기반

구축이다. 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 관건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상승효과를 꼽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대첩광장과 의 관광객 이동 동선을 연계하거나 문화재 보존 구역 이외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활용안은 문화재위원회의 결론이 난 후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진주(경남)=류광현 기자 news24@

인천공항공, 3년내 사회적경제 조직 200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조직 200개 육성을 목표로 국내 사회적 경제와 포용적 성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연남장에서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

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약 25개 사회적 경제조직에 20억 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5월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 2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제로페이 무용론’에 박원순 “신용카드 40년 걸렸다”

(서울시장)

서울시 국감

박 시장 “제로페이 1년도 안돼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말” 교통공사 채용비리도 재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유착 의혹 ▲마곡지구 개발 사업 문제점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저조 등을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나 고용비리는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4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며 “감사원에 재의 절차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있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고 재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 중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절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 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절,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시는 채용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4가지 사안은 위법 내지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된 점을 시인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시장은 “특수차 운전 분야에서

부당채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감사원의 오류가 있었다”며 “철도차량 운전업무 부분은 단순히 운전뿐만이 아닌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운전면허가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코링크PE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계약 조건대로 면허 취득도 하지 않고 일

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며 “지나친 특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실시 도면 제출, 투자금 확보, 면허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 측근들이 마곡 지구에서 각종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마곡지구 입찰 자료를 모조리 요구했다”며 “토지내용별로 1~3순위 입찰 금액, 낙찰차액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요구한 직후 작년 12월 자신이 이사로 부인이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토지입찰 일괄 군데에 참여해 4개를 낙찰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4건 중 2건은 중도금을 갚지 못해 계약 해지 직전이다. 능력도 안되는 업체가 무리하게 낙찰받았다는 것 아니겠냐”며 “현역 의원이 직무를 남용했다. 서울시는 공직 기강 차원에서 SH공사를 감사하고 김용연 의원에 대해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부지 낙찰은 SH공사의 경쟁 입찰을 거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공개입찰경쟁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연주 의원은 제로페이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에 시민의 혈세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 각종 인프라가 투입됐는데도 작년 말까지 누적 결재액이 317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제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끼어들어 공공의 권력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서울시 때문에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민간결제업자가 운영하는 제도고 시는 시스템이 깔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신용카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가 40년 동안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로 QR코드로 바뀌고 있고 필연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제로페이는 시작한 지 일년도 안됐다. 신용카드는 40년 걸렸다. (실적이 낮다고 지적하는 건)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일몰 위기 도시공원 보전한다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 57%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선정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사라진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로 줄어든다. 세계

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0㎡보다 1.4㎡ 적다.

시는 “시민 휴식처가 사라지고 공원 해체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휴양림, 수목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시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된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 생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 등 5개소 약 0.35㎢도 이번엔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2주일간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의견을 조율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하는 내용이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붉게 물든 가을

1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붉게 물든 칠면초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잠실주경기장서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식

서울시는 15일 오후 5시30분 잠실종합경기장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개회식 메인공연은 ‘뛰는 심장, 소리, 너머’를 주제로 개최된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모티브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뛰는 심장의 열정을 표현할 예정이다. 일반관람석은 1만여석으로 오후 3시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연구원 ‘시민 위한 플랫폼 경제’ 세미나

서울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를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의 축사 ▲저스틴 킨츠 미국 우버 정책담당 부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우버의 저스틴 킨츠 부사장이 ‘미래

도시교통으로 바라본 플랫폼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후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울의 미래 교통’, ‘공간공유 플랫폼으로서 공유오피스의 가능성과 과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서울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서울의 과제’를 정리해 보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결산보고서’,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및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광역자치단체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39개(광역 17개, 기초 22개)자치단체가 참가했다.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광역단체부문에서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과 함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도는 방대한 분량,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구성 등 획일화된 기존 결산

서의 틀에서 탈피해 복잡한 설명을 최소화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핵심적인 결산정보 및 도민 관심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를 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카드뉴스 형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가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산업]
삼성 SDI 대책 발표
ESS 신뢰 회복 나서
특수 소화시스템 적용
06



Life

[라이프]
오싹해진 유통업계
할러윈데이
특수를 잡아라
니



- ① 지난 8월 페퍼저축은행의 대학생 홍보대사 핫페퍼스 4기 활동자들이 수료식을 가졌다.
- ② 지난 5월 에버랜드를 방문한 성남 지역 아동들과 페퍼저축은행 장매뉴 대표(오른쪽).
- ③ 지난 6일 호주대사관이 주최하고 페퍼저축은행이 후원한 제주도 자선 자전거 라이딩 행사에 참여한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오른쪽 세번째), 가수 선(오른쪽 네번째) 등 자선 중주 사이클리스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인재 키우고 지역아동 지원... 호주에서 온 '힐링뱅크'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④ 페퍼저축은행

따뜻한 서민금융기관을 목표로 하는 페퍼저축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사람'을 향한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약 60조 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달성하며 활발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국내 각 지역민을 위한 활동은 물론,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린 해외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호주유학 지원금 전달 ▲성남시 아동복지센터 지원 ▲제주 다문화가정 및 루게릭병 환우 지원 등으로 사람을 보살피는 페퍼저축은행의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들여다본다.

◆청년인재 돕는 든든한 지원
페퍼저축은행의 대학생 홍보대사 '핫페퍼스(Hot Peppers)'는 제2금융권에서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권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 1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 4기를 맞이한 핫페퍼스에서는 다양한 금융·마케팅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눈길을 끈다. 지난 8월 수료식을 가진 핫페퍼스 4기 참가 학생들은 활동 기간 동안 페퍼저축은행을 널리 알리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고, 은행 직원들

국내 각 지역 소외계층 위한 봉사
글로벌 금융 특성 살린 해외활동

금융권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
우수 활동자에 인턴십·채용우대
인재 육성 위한 호주 유학 지원도

지역 복지시설 아동 초청해 봄소풍
제주 자전거 중주행사 기부금 모금

과의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취업 및 직무에 대한 경험담을 전해 들었다. 또 금융권 전문가가 진행하는 강연 등에 참석해 다양한 직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핫페퍼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팀워크와 직무 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기 참가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페퍼저축은행은 핫페퍼스 우수 활동자에게 인턴십 기회와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1기 핫페퍼스로 활동했던 참가 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해 금융기업 구직자들과 업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호주 유학 지원금'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호주계 금융기업인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호주에서 학업을 잇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유학 지원금 프로그램은 국내 학생들이 호주 유학을 통해 식견과 지식을 넓혀 글로벌 우수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주관 호주 대사관이 주최하는 '호주대사관 유학 박람회 2019'에 참가해 호주 유학 지원금 설명회를 진행했다. 페퍼저축은행은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들 중 10명을 선정해 호주대사관과 함께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2명을 선정해 유학자금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된 2명에게는 각각 호주 유학자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지원금 이외에도 호주 페퍼그룹 본사 방문과 페퍼저축은행 인턴 기회 등이 부상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지역 소외계층 살리는 따뜻한 희망
페퍼저축은행은 국내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우선 페퍼저축은행은 리테일 지점이 다수 위치해 있고 영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성남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성남 지역 아동 초청 봄소풍'은 페퍼저축은행의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성남지역 복지시설 아동들을 초청해 해마다 봄소풍을 함께 하는 프

그램이다. 지난 5월 페퍼저축은행은 '함께여는 청소년학교'·'새하늘'·'성남꿈나무학교' 등 성남 지역 3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약 80여 명을 초청해 페퍼저축은행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인근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떠났다. 참가한 학생들은 놀이공원 내 다양한 놀이시설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페퍼저축은행은 또한 지난 6월 호주대사관 싸이클링팀의 제주도 자전거 중주 행사에 스폰서로 참여해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기도 했다.

행사는 페퍼저축은행과 호주대사관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등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개최됐다.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 전달돼 제주도 내 다문화가정 아동 및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쓰였으며, 그 중 일부 기금은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을 지원하는 승일희망재단에 전달됐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페퍼저축은행은 사람 중심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모그룹인 페퍼그룹이 호주를 포함한 한국·영국·아일랜드·스페인·중국·홍콩 등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인 만큼, 향후 글로벌 사회공헌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